

Emmanuel

임마누엘 [오래 참음호] Vol.16, No.3, DEC 24, 2017



말씀의 창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전 13:4, 7)

“LOVE IS PATIENT AND KIND”
“LOVE BEARS ALL THINGS, BELIEVES ALL THINGS,
HOPES ALL THINGS, ENDURES ALL THINGS.”
(1 CORINTHIANS 13:4, 7 ESV)

Contents

Vol.16, No.3, Dec 24, 2017

I. 오래 참음을 열며	02	말씀의 창 - 고리도 전서 13:4,7
	04	담임 목사 칼럼 - 오래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II. 행진 시리즈	06	믿음의 선진들 - 존 칼빈
	10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인도 GAP 안강희 선교사
	12	공예배 현장 - 화요 여성 예배
	16	임마누엘 평원 소개 - 남부 평원을 소개합니다
	20	양화진 선교사 이야기 - 원산 부흥 운동의 주역, 로버트 하디
	22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이야기
	26	오래 참음호 특별 기획 - 2017, 임마누엘 7대 뉴스
III. 실민한 물기	30	전도팁 - 원대한 비전에 삶을 던지라
	32	임마누엘 레시피 - 예수님을 노래하는 크리스마스 애프터타이저...
	34	시가 있는 풍경 - 내게 고통을 주신 주여
	35	크리스천 명언 - 토마스 아 켐피스
	36	성경 속의 도량형 - 성경 속의 화폐 단위
	38	성경 속의 절기와 풍습 - 나팔절
	40	임마누엘 카툰
	42	찬양팁 - 슬픔의 노래도 부르십시오
	44	올바른 기독교 용어 - 그리스도인들이 쓰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46	크리스천의 올바른 자녀 양육 - 서른이 넘어서 더 행복한...
	48	임마누엘 퍼즐, 다 함께 풀어요
	51	함께라서 좋아요 - 장애인 에티켓 배우기
IV. 임마누엘 사람들	52	나의 사랑하는 책 -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
	54	전도 간증 -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56	성경학교 수료 간증 - 기도의 여정, 그 전환기에서
	58	목장 섬김 간증 - 어린이 목장을 기대하며
	60	뉴멕시코 단기 선교 간증 - 채워주시는 하나님
	62	네팔 단기 선교 간증 - 네팔에서 만난 친구들
	64	멕시코 단기 선교 간증 - 포기하라! Give it up!
	68	나의 노래 - 나의 하늘 아버지에게
	70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 축복의 통로
	72	푸른 목장 -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되신 키르키즈 목장
	74	사진 묵상 - 하박국 2:4
	76	부서 소개 - 예배 1부
	78	팀 소개 - 이슬비 사랑의 편지팀
	80	크리스천 영화방 - 오두막 (원제: The Shack)



오래 참는 지는 복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인과 함께 일하는 멕시코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말은 “빨리빨리”라고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한국어 단어도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빼면 아마도 “빨리빨리”일 것입니다. 타민족에게 한국인의 특성을 물어보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급한 성격이라고 답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 아프리카 케냐보다 못사는 나라, 세계 각국의 원조와 차관을 받아 겨우 지탱하던 나라, 땅덩어리도 작고 자원도 없는 그런 나라가, 반세기 만에 세계 열 번째 경제대국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한국인의 근면과 잘살아 보자는 열정이었다면, 아마도 그 부산물은 “빨리빨리” 문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았지만, 한국인들은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 급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걷거나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참기 힘들어하며,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면 재촉을 하거나 화를 냅니다.

여러 해 전에 중국에 갔을 때 북경의 유명한 식당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식당 주인은 특히 한국 손님들을 좋아합니다. 중국인이나 다른 외국인 손님들은 대화를 나누며 오래오래 먹고 가지만, 한국 손님들은 준비하고 있다가 음식이 나오면 뺏속에 쏘여 담듯 먹고 일어서기 때문에, 다른 손님 한번 받을 때 한국 손님은 2, 3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급하고 빠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급성은 벚꽃처럼 활 피었다가 활 저버리는 이웃 나라 일본의 상징이었고, 우리 민족은 무궁화처럼 끈기 있고 참을성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과거부터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는 늘 오래 참아야 했습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를 그냥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고, 배고파도 먹을 것이 없으니 참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없었습니다. 새 고무신을 신고 싶어도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는 무던히 참고 또 잘 참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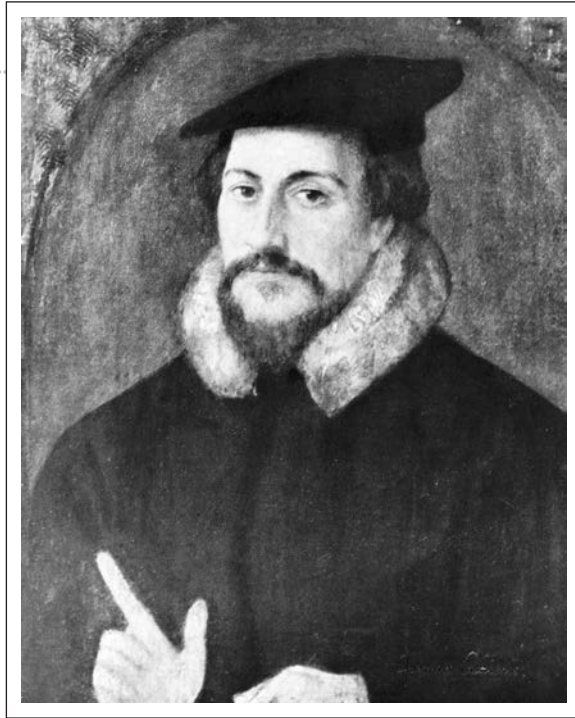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먹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이 너무 풍족해졌습니다. 그와 반비례하여 인내심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매사에 참으며 살아야 했던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순간 치솟는 분노를 참지 못하여 온갖 갈등과 다툼, 폭언과 폭력이 줄지어 일어나고, 심지어 살인과 자살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고전 13:4). 아내나 남편이 말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고 들읍시다. 그리하면 뜻밖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녀들의 말에 인내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세요. 자녀들과 대화가 달라질 것입니다. 서로 참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합시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케 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저의 조급증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시간을 계산하는 분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도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통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글 손원배 담임목사



존 칼빈(John Calvin, 1509~ 1564)

1509년 프랑스 노용(Noyon)에서 태어난 존 칼빈은 성직자의 사업 담당자였던 아버지 덕분에 노용 대성당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 주교의 후원을 받아 성당 신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고, 12살 때 당시 성직자가 되는 풍습대로 삭발까지 했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머리가 총명하고 뛰어났던 칼빈은 타고난 지성과 판단력으로 학우들 사이에서도 뛰어난 인물로 인정을 받았다. 칼빈은 안색이 좋지 않고 몸도 허약했으며 신경질적이고 수줍어하는 편인 데다 화도 잘 내는 성격이었지만, 사리 판단이 정확하고 지적 능력이 아주 뛰어나 아버지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14세 때 그는 파리 라 마르세 대학에서 라틴어를 배웠다. 그러나 다시 중세 수도원의 엄격한 규율에 따라 금욕적이고 엄격한 훈련을 요구하는 몽테규 대학으로 옮겨 금욕주의적인 삶과 장시간 공부하는 습관을 익혔고, 5년간의 대학 생활을 통해 종교개혁의 새로운 사상들을 접하게 되었다. 19살의 어린 나이였던 칼빈은 대학을 졸업하고 카톨릭 사제가 되기 위한 다음 단계로써 신학 연구 자격시험에 통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학에서 법학으로 전공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당시 유명했던 오를레앙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또다시 진학의 길에 올랐다. 오를레앙 대학에서 칼

빈은 영양섭취가 부실한 가운데서도 하루 4시간 이상 자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했는데, 이로 인해 후일 건강을 잃어 여러 가지 병을 얻게 되었는데 이는 결국 그가 일찍 죽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1531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칼빈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칼빈의 아버지는 그를 법학자로 만들고자 애썼지만, 하나님은 그의 진로를 바꾸셨다. 1532년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3세의 나이로 세네카의 <관용론> 주해서를 출판하게 되는데, 세네카의 <관용론>은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무참하게 박해하자 네로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의도에서 쓴 책이었다. 칼빈이 주해서를 쓴 것은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가 개신교도들을 박해하는 것에 대한 의문 속에서 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유창한 라틴어로 이 책을 기록했다고 한다.

1533년경 개신교로 개종하여 종교개혁 운동에 합세했는데, 그는 자신의 개종에 대해 언제 정확히 회심의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고, 다만 자신의 회심에 대해 ‘뜻밖의 회심’이란 말을 썼고,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회심으로 오랫동안 완악해졌던 마음을 온순하게 길들이셨다고만 기록하고 있다. 칼빈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고자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한 대로 이해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생활을 위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며 통회하는 생활을 했다. 이와 같은 칼빈의 경건한 삶,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울무와도 같은 교황청 미신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타게 한 것으로 보인다.

1533년 11월 1일, 파리 대학 총장으로 취임하는 콥의 취임 연설 원고를 칼빈이 작성하게 되는데, ‘기독교 철학’이란 제목의 이 연설은 루터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복음과 율법을 비교해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강조했다. 그리고 종교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박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연설 이후 그들에 대한 비난과 핍박이 가해져 콥은 바젤로 피신하였고 칼빈도 파리 남서부 400km에 위치한 친구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그 집에 약 4천여 권의 장서가 있었다. 여기에서 칼빈은 방해 받지 않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는데, 바로 이곳에서 칼빈은 복음주의 신학의 핵심을 이루는 ‘기독교 강요’라는 대저작의 체계를 세웠다.

1534년 25살의 칼빈은 공식적으로 로마 카톨릭교회와 결별하게 되는데, 그해 10월 개신교인들에 대해 비난하는 전단이 프랑스 전역에 살포되었고, 개신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칼빈도 결국 망명자가 되어 고국 프랑스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27세인 1536년에 ‘기독교 강요’ 첫판을 출판했고, 스위스 제네바에 정착하였다. 2년 후 제네바에서 추방되어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잠시 목회할 때였던 1540년 31세 때, 이델레트라느 두 아이를 가진 과부와 결혼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이 그리 좋지 못했음에도 순복의 성품으로 죽을 때까지 칼빈을 도왔고, 1549년 이델레트라가 죽을 때까지 칼빈은 9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였다. 칼빈은 32세에 제네바로 돌아와 55세에 죽을 때까지 제네바

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완성해 나가는데, ‘기독교 강요’는 칼빈의 가장 위대한 교리 및 경건서이며 개신교 신학의 정수이기도 하다.

칼빈은 극단적인 금욕 생활과 수련 등으로 30세까지 건강이 다 망가졌다고 한다. 그는 편두통을 피하기 위하여 하루 한 끼 소식을 했으며,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약해지면서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몹시 수척한 모습이었다고 전해진다. 죽기 전 칼빈은 만성 천식과 폐결핵, 위궤양으로 인한 소화불량, 두통, 담석, 치질, 통풍, 열병 등을 앓고 있었으나 그는 최후까지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과 인간을 섬겼다. 하루 4시간 이상 자지 않았고, 심지어 몸져누워 있을 때도 자신의 말을 받아 적도록 불어와 라틴어를 기록할 수 있는 4명의 비서가 항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방대한 그의 저술들은 이런 그의 노력으로 산출된 것들이었으며, 결코 천재적인 머리로 손쉽게 책을 써 내려간 것은 아니었다.

칼빈의 삶의 불꽃을 태워 기록해낸 이런 저술들은 종교개혁 시대 이후 17~19세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학자, 목회자, 평신도들을 깨웠으며, 교회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했다. 바울과 어거스틴과 루터에게서 습득된 절대 주권적으로 오직 믿음과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칼빈의 비전은, 이후 윌리엄 캐리와 같은 개척선교사들뿐 아니라 리처드 백스터, 존 번연, 요나단 에드워드, 조지 화이트 필드, 이이작 뉴튼 경, 찰스 스펄전, 로버트 마펫, 아브라함 카이퍼, 마틴 로이드 존스와 같은 위대한 부흥목회자들에게 불을 질렀다. 한마디로 시대를 이끌어 갔던 개혁교회 대부분 지도자들은 칼빈주의자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회, 목회 훈련, 정부 통제로부터의 적절한 자유에 대한 칼빈의 비전은 장로교 설립을 낳았으며, 거기에서 생겨난 대표제 민주주의는 오늘날의 세속 민주정치의 기초가 되었다.

프랑스 사람인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혁 운동을 전개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칼빈의 저술이나 설교에 대해 트집 잡고 비판하는 것뿐 아니라 반대파들의 공갈과 협박은 끊임 새가 없었고, 주민 중에는 자기 개의 이름을 칼빈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를 혐오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는 하루에도 열 번씩이나 죽음을 동경할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칼빈은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죽은 미사 대신 예배를 갱신해 나갔으며, 어른들은 물론 어린이들

의 신앙 교육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칼빈은 어린이들에게 신앙의 핵심인 요리문답을 가르치지 않고는 교회 개혁이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제네바의 개혁을 위한 14년 간(1541-1555) 계속된 투쟁은 칼빈의 승리였다. 칼빈의 개혁 운동은 그의 생존 시에 이미 큰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의 위그노(HUGNOT) 운동이 칼빈의 사상을 받아들여 칼빈주의적 신조를 채택했고, 네덜란드에서도 칼빈주의자에 의해 신앙고백이 채택되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그의 제자에 의해 장로교 신조가 채택되어 장로교 국가가 되었으며, 영국 교회는 칼빈주의 영향 아래에 ‘39개 신조’를 채택했고 곧 청교도 운동의 효시가 되었다. 독일 남부 지역도 칼빈주의로 변하여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채택되었다. 스위스에서는 취리히, 바젤, 베른 등 전역이 칼빈의 영향을 받았다. 칼빈은 위궤양, 관절염, 천식, 폐병 등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병을 앓으며 고통받으면서도 열정적인 사역을 계속했다. 그는 <기독교 강요>를 계속 재편집했고 20편에 달하는 신학 논문을 발표했으며 그의 저작 전집은 모두 59권에 달한다. 칼빈은 1564년 5월 27일, 5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칼빈이 죽을 때 남겼던 유언은 지금도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다.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고 내 무덤의 흔적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출처 [HTTP://WWW.IMR.OR.KR](http://www.imr.or.kr)

사진 출처 WWW.THETRUTHLIGHTHOUSE.ORG

편집부 정리 및 편집



평안의 축복 전도



이제 역사적인 인도의 미개척 종족 선교의 끝이 보입니다. 올해 5월까지 남아 있던 329개 중에서 거의 다 개척이 시작되어 약 50개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하여 인도의 동북부, 남부, 북동부, 북서부, 북중부, 중부 지역과 안다만 니코바 아일랜드, 네팔과 미얀마와 라오스의 미개척, 미전도 종족들을 개척하기 위한 모임들을 마쳤습니다. 지역 교회 목회자들과 총회 소속 사역자들이 남아 있는 미개척 종족들을 입양하여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아 있는 종족들도 개척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미전도 종족인 왈랑춘골라 종족은 중국 국경 지역에 있고, 일 년에 몇 개월은 눈으로, 여름에는 비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종족이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사역자로 훈련받고 자신의 종족을 개척하던 왕춘이 타쉬를 전도하여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타쉬는 진리를 찾던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님이 진리와 길과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평안과 자유함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명의 신자와 2개의 동네에 가정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카트만두 수도에도 왈랑춘골라 종족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네팔의 모든 미개척 종족들 안에 사역자들이 세워졌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에도 인도 전국적으로 5,927개 동네를 찾아가서 10만 7천 가정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약 10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7만 8천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도하면서 걷은 헌금도 약 4백 6십만 원 정도 됩니다.

자이푸르시에 사는 비니트왈은, 힌두교 최상류 브리만 승려 출신입니다. 비니트는 부인과 다섯 딸이 있으며, 술 중독으로 암흑 속에서 살았습니다. 잘 사는 집이었는데, 술값을 마련하느라 모든 가족을 혈값에 팔기도 하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가족

들은 비니트를 의사들과 알콜 중독 재활원에 보내어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또한, 힌두교 중들과 절에 보내 기도도 받게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자기 부인과 아이들을 때리고 친정집으로 쫓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뉴델리 시로 와서 다른 여자와 결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인이 먼저 딸이 기도로 낫는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가족이 함께 한 달 이상 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델리에서 자이푸르 시로 되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과 딸들을 집으로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 갑자기 딸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그 딸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비니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지금은 술 냄새만 맡아도 속이 상하게 만드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그만두게 되자 핏박이 몰려 왔습니다. 그러나 비니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간증을 하면서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의 가정 교회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힌두교 승려 한 사람이 교회 바로 옆에 있는 힌두교 사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비의 과거의 삶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니트의 변화된 삶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힌두교 승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비이5 일간 가정 교회 지도자 훈련을 받고, 많은 주변의 동네들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비는 6세대의 제자입니다. 방카치-아룬-프라카시-니할-라홀-비. 방카치 목사는 2010년 3월에 예수 영화 사역자였던 비제이 모드를 통해 소개받았습니다. 미전도 종족들을 복음화하는 일을 위해 사역 훈련을 시켜서 지금까지 동역하고 있는 제자입니다. 라자스탄주의 자이푸르시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인도 전국에서 5백만 가정 평안의 축복 전도 운동을 펼칩니다. 올해 인도의 전도목표가 6백만 가정입니다. 올해 7월까지 이미 1백만 가정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 지역에서 사는 5백만 가정에 예수님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5백만 장의 전도지를 만드는데 아직 부족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전도의 문을 전국적으로 열어 주시고 사역자들과 신자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3일 안강희, 박성자 드림
글 안강희 선교사 (인도 GAP, 임마누엘 협력 선교단체)



여성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배자들의 공동체



매주 화요일 10시 20분, 교회의 현관문을 열고 바쁜 길에서 EM 예배당으로 향하는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기 전부터 아름다운 피아노 반주와 바이올린 선율과 함께 자매님들이 부르는 찬양이 들려옵니다. 아마도 그 찬양 소리가 더욱 발걸음을 재촉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찬양에는 끌리는 힘이 있습니다. EM 예배실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언제나 밝은 얼굴로 주보를 나누어 주시며 반갑게 맞아 주시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조용하면서도 환한 미소가 여성 예배를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서면 박성호 목사님과 몇 주마다 돌아가며 말씀을 전해 주시는 부목사님 외에는 남자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성이기에 축복받는 화요 여성 예배, 그 예배의 현장을 지금부터 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화요여성예배를 담당하고 계신 박성호 목사님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눈에 잘 띄는 존재감은 없지만 은은한 차 한잔의 깊이가 있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화요 여성 예배입니다. 임마누엘교회 주보를 자세히 보시면 예배 안내에 조그맣게 ‘여성예배: 화요일 10:20’ 정도의 안내를 통해 우리는 그런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화요 여성 예배는 어느덧 11주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07년 가을에 처음 시작된 화요 여성 예배는 처음엔 우리 교회의 부목자들을 영적으로 훈련하고 제자 삼는 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 성숙해진 나무처럼 나이테도 좀 보이고 땅에 깊이 심겨진 나무처럼 임마누엘의 영적 흐름을 이끌어 가는 주중 예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분의 여성 사역 전도사님들께서 화요 여성 예배를 섬겨주셨고 2017년부터는 박성호 목사가 담당 사역자로 예배의 말씀을 주관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가을학기에는 그동안과는 좀 다르게 보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화요 여성 예배의 주요 사역으로 각 팀별로 꾸준히 진행하던 ‘큐티 나눔방/큐티 세미나’, ‘커피 브레이크’, ‘일대일 제자 양육’, ‘기도하는 엄마들’ 등의 팀별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모두가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자매들과 소그룹을 구성하여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라는 주제로 소그룹 성경공부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으로 구성된 소그룹과 13개의 일반 소그룹이 모이고 있으며 12월 5일에는 가을학기를 마무리하는 예배를 가지며 방학을 갖게 됩니다. 가을학기에는 약 100여 명의 자매님들이 등록을 하였으며 평균 75% 정도의 참여율로 매주 예배와 소그룹이 있는 화요일에 예배당을 채우고 계십니다. 아기들을 돌보시는 선생님들이 약 3시간 정도를 정성을 다해 섬겨주시고 격주마다 점심을 제공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의 수고로 식탁의 교제도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로 30대에서 60대까지의 기혼여성들이 중심되어, 의미 없이 흘러갈 수 있는 주중의 하루를 영적인 공급이 있는 예배, 그리고 삶의 나눔을 통한 영적 훈련의 자리를 꿈꾸며 많은 사역자들이 화요 여성 예배를 위해 섬기고 계십니다. 물질만능과 기술의 효용성이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는 실리콘밸리 지역에 사는 우리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뒤쳐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좀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가는 대안적 공동체를 꿈꾸어 봅니다. 거져 싸와도 같이 지금은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마침내 크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느티나무와도 같은 공동체를 꿈꾸어 봅니다.

박성호 목사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질지 모르나 이번 학기가 끝날 때에는 느티나무와 같이 큰 나무가 되어 잇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성 예배의 박영수 부장님께서서는 “한분 한분 여성 예배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며 또 다른 자매에게 함께 화요 여성 예배에 참여하자고 소개하시는 모습도 보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큰 기쁨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여성예배를 통해 모든 자매님이 예배로 회복되어 말씀과 기도로 자녀 양육과 가정과 교회에 쓰임 받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매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기 동안 여성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따르는 여인들로 세워져 이 땅과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도하는 여전사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여성 예배에 대한 바람을 말씀 하셨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기존의 여성예배와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소그룹 모임인데, 박성호 목사님이 소개하신 대로 캐롤린 나이트룸이 지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라는 교재로 말씀을 전하시고 교재에 있는 질문에 맞게 소그

룹에서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두 10과로 구성되어있고 각 과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헌신을 지켜나가기, 인내심 키우기, 진실을 말하기, 절제를 훈련하기 등등 말씀을 바탕으로 실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제들이어서 나눔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차일드케어를 맡으신 노은영 집사님, 현영 집사님, 김숙경 전도사님께서서는 차일드케어가 단순하게 아이들을 돌보는 차원을 넘어 아이들이 화요일에 엄마와 함께 매주 즐거운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세 이상, 학령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부에서는 기도, 찬양, 그리고 말씀으로 이어지는 예배와 예배 후 간식 시간, 그리고 재미있는 CRAFT 시간이 이어집니다. 3세 이하의 어린아들이 있는 유아 방에서는 오감을 자극하는 여러 장난감과 아이들을 내 아이보다도 더 사랑스럽게 돌보아주시는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아

이들이 화요일에 무료로 지내고 있다면 아이들과 함께 여성

예배에 참여하셔서 엄마도 은혜받고 아이들도 즐겁게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예배에서 처음 소그룹 리더로 섬기시는 장은정 집사님께서서는 “생각지도 않은 미국에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잘 견뎌내어 보겠다고 나를 열심히 살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며 낮은 자존감으로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여성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셨고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제 영적 태도의 여러 부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번 학기 성경공부를 통해 영적 태도를 점검하고 본이 되시는 주님의 온전함을 담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9월 2월부터 여성 예배에 참여해 온 최유진 집사님께서서는 “이번 학기 여성 예배 소그룹 리더의 역할을 제안받았을 때, 7년간 쉽 없이 예배드렸으니 이번 학기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컸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기를 원하시나?’ 하는 약간의 기대로 리더의 자리에 서기로 했고 지금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을 알아 가려고 애쓰던 내 열심에 나 스스로 높은 점수를 주며 정착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는 소경 같았던 나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성경공부를 통해 또 어떤 깨달음과 기쁨을 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고멜과 같았던 나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니다.”라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하심을 감사드렸습니다.

예배의 마지막은 매 주 여성 예배에 새로 오시는 자매님들을 위해 찬양으로 환영해 드리며, 매달 둘째 주에는 생일을 맞으신 자매님들께 꽃 화분과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 드립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은혜로운 화요여성예배 현장에 다녀오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받으려고만 기대하고 참여했던 여성 예배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또 교회의 여러 지체와 어우러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베풀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처음 여성 예배에 참여하신 김연걸 자매의 소감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며 글을 마치려 합니다.

“화요일마다 예배당으로 갈 수 있는 축복받은 여자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예배가 없어서 못 갈 수도 있고, 너무 멀어서 갈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임마누엘 장로교회에 출석하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혼자 감당하다 지쳐있을 때 화요 여성 예배에서 나와 같은 자매님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절로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의 어려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글 김인영(남부 평원 서부 아프리카 목장 부목자, 편집부 편집팀)
사진 윤영숙(동부 평원 중국 순회 목장, 여성중창단, 편집부 사진팀)



남부 평원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남부 평원을 섬기고 있는 박기한 목사입니다. 남부 평원은 CUPERTINO, SARATOGA, LOS GATOS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의 남쪽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AN JOSE에서는 ZIP CODE가 95129 인 곳이 남부 평원이며 CAMPBELL, MONTE SERENO, SANTA CRUZ, CAPITOLA, SALINAS, WATSONVILLE, MORGAN HILL, GILROY, MARINA가 다 남부 평원에 소속된 도시입니다. 그 멀리서도 우리 교회에 오시나구요? 그럼 오 편도로 1시간 20분씩 걸리는 그 길을 매주 오시는 가정이 있으시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화평호’ 임마누엘 사람들 새가족 소개를 참고하세요.)

남부 평원은 26개의 목장이 5개의 초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원지기로는 이재규 장로님(이인섭 권사님) 가정이 섬기고 계시며, 초원지기는 구명관/구영선, 김범진/김정신, 박종화/박숙희 B, 정규화/김인영, 이구진/정은이 이렇게 5가정이 섬기고 계십니다. 총 26개 목장에 소속된 가정은 112가정이며, 목장마다 선교지를 한 곳씩 품고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초원	목장 이름	목자 / 부목자	선교지
구명관	카작 목장	구명관 / 구명선	카작스탄
	만주 목장	김일구 / 서유정	북한 선교
	태국 목장	이종현 / 박종윤	태국
	이집트 목장	편재호 / 박신영	이집트
	키르키즈 목장	고석진 / 방보경	키르키즈스탄
	중국 강성 목장	박명춘 / 박정임	중국
김범진	브니엘 목장	김범진 / 김정신	요르단
	Haiti 목장	김우찬 / 김수현A	Haiti
	베트남 목장	이관오 / 곽은혜	베트남
	함경도 목장	정정수 / 정경화	북한 선교
	계림 목장	김덕진 / 신윤정	중국
박종화	미얀마 목장	박종화 / 박숙희	미얀마
	아리조나 나바호	백영진 / 백혜경	미국
	애굽 목장	김현배 / 윤신자	이집트
	네팔 물빠니	이기형 / 신혜정	네팔
	새빛 네팔	최진호A / 김수연	네팔
이구진	벵골 목장	이구진 / 정은이	인도
	필리핀 케손 목장	안성현 / 이순희	필리핀
	심양 목장	이용원 / 이화진	북한 선교
	Guding Light 목장	김용훈 / 박미라	미국
	몽골 목장	이치훈 / 최미정	몽골 교회
정규화	서부 아프리카 목장	정규화 / 김인영	모리타니아
	서울 목장	김낙은 / 박지영	한국
	스웨덴 목장	조성주 / 최인애	북한 선교
	와바시 목장	김영국 / 공혜리	미국
	락 스프링 목장	심도준 / 차홍기	미국

남부 평원이 가정교회 사역원에서 맡은 사역은 행사 사역입니다. 그래서 5월에 목자/부목자 수련회를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자/부목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며 도전을 받고, 사명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했습니다. 소그룹 나눔을 통하여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122개 목장의 목자/부목자님들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 새 힘을 얻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자님 가정의 아이들도 참여하여 교육부에서 신경 써서 준비한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지역을 기준으로 평원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소속된 평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속하시고 싶으신 목장이 있으시면 평원과 관계없이 목장에 속하실 수 있습니다. 목장이 모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섬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부르심을 받은 교회된 우리들이 가정 교회로 모여서 주님의 뜻을 같이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목자가 섬김의 리더십의 본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목장이 함께 힘을 합하여 VIP를 섬김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가족으로서의 친밀감을 가진 목장 식구들이 매주 모여,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쓴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삶 속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일을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잘 안 되었던 일에는 공감과 격려를 통하여 목장 식구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갑니다.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면 목장 식구들이 친밀해지며, 가정의 구체적인 필요를 서로 도움으로 깊이 있는 사귀기가 이루어집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부족한 부분과 연약한 부분을 나누면서 죄와 상처로부터의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혹시, 아직 목장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가족분들이 계신다면 목장에서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며 제자 삼는 일에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글 박기한 목사 (남부 평원, 행정, 관리 위원회 담당)
사진 김범진 (남부 평원 브니엘 목장, 편집부 사진팀)

하나님의 은혜

올 한해 우리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박기한 목사님과 목장 심방을 했을 때 모든 목장 식구들이 지난 주 일 설교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각 가정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 가운데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장들 식구 중에 아픈 분들과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이 계셨는데 목자, 부목자님들이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히 모든 목장이 이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VIP들을 잘 섬기는 모습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 남부 평원의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임마누엘 장로교회의 비전을 보게 되었고,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도 가정교회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면 지금부터라도 목장에 참여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재규 장로 (남부 평원 평원지기)



원산 부흥 운동의 주역, 로버트 하디 (ROBERT A. HARDIE, 1865-1949)



하디 선교사는 1865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출생했다. 그는 대학을 마친 후 잠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기도 했지만, 곧 의사가 되겠다는 큰 뜻을 갖고 토론토대학 의학부에 진학했다. 대학 2학년 때 ‘기독교 외국선교 학생자원운동’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선교사의 꿈을 가지게 되었다. 졸업 후 의사가 된 하디는 1887년 켈리(M. Kelly)와 결혼하였고, 토론토 의과 대학 YMCA 선교회 지원을 받아 25세인 1890년 9월 30일, 가족과 함께 의료 선교사로 부산에 도착했다.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 회심 26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의 위대한 불씨를 지폈던 하디 선교사의 ‘영적 대각성 운동 기념비’를 건립했다. 그의 두 딸이 묻혀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세워진 기념비에는 두 딸의 모습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

“감리교회 하디 선교사는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의 위대한 불씨를 지피었던 사람이다. 당시의 불길은 점점 번져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촉발시켰으며, 마침내 한국 교회 전체로 확산되었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어 낸 주역이 되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위대한 평양 대부흥 운동 100주년을 맞아 다시 영적 대각성 운동의 불길을 사모하고 그가 이 땅에 남기고 간 사랑하는 두 딸의 흔적을 기억하면서 이 비를 세워 역사의 뜻을 기리고자 한다.” _ 2006년 5월 24일

부산에서 게일 선교사와 함께 사역하다가 서울로 와 제중원에서 예비슨과 함께 환자를 진료했다. 이때 하디는 상당수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여 살렸고, 그로부터 서양 의사와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사회에 전파되었다. 1898년, 토론토대학 선교회의 8년 후원 계약이 끝나게 되었지만, 때맞춰 감리교 원산 선교부의 초청을 받음으로써 미국 남 감리교회 소속 선교사로 남게 되었다.

감리교 원산 선교부에서는 강원도 지방까지 말아 선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활동무대는 광활해졌다. 그는 1901년 10월에 강원도 동해안 지역 일대에서 선교하면서 15명을 전도해서 교회를 설립했다. 15명이라는 적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가르치면서 교회를 설립했지만, 한편 그는 자신이 영적인 면에서 연약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나는 3년 동안 미국 남 감리회가 세워진 동해안 지방에서 애써 사역을 했지만, 선교 사업에 실패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만큼 그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1903년 8월, 그는 여름휴가도 포기한 채 갈급한 마음으로 원산에서 다른 7명의 선교사를 모아 중국 감리교 소속 화이트(Miss M. C. White) 선교사를 초빙하여 사경회를 개최했다. 이때 하디 선교사는 새로운 성령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데,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내재하심을 경험했으며 나의 부끄러움과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과 믿음의 부족함과 모든 잘못을 자복했습니다. 나의 이런 자복은 회중에게도 강한 영향을 미쳐 강한 죄의식과 믿음의 부족함을 비로소 깨닫고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원산 성령운동의 불씨가 되어 1907년에는 마침내 평양 대부흥 운동의 큰 불을 일으켰고 전국으로 번져 확산되었다. 하디는 각 지역에 모이는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받은 성령의 체험을 소개했다.

1909년에는 감리교협성신학교(현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장으로 취임했다. 그가 교장이 되면서 요한 웨슬리의 회심과 그의 성령 운동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는 1916년에 최초로 감리교협성신학교 교수 논문집인 ‘신학 세계’를 창간하는 데 공헌하였다. 이 논문집은 감리교가 한국에 요한 웨슬리를 소개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1935년 4월, 45년간의 조선 선교 사역을 마감하고 떠나는 날 하디는 두 딸이 묻혀 있는 양화진을 찾아 마지막 고별식을 가졌다. 하디는 1893년 8월 9일에 딸을 얻었지만, 하루만인 8월 10일에 딸은 주님 곁으로 갔다. 그 후 1903년 9월 1일에 둘째 딸을 얻었지만, 둘째 딸 역시 1909년 여섯 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양화진에 묻혔다. 당시 하디 부부는 동료선교사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양화진에 두 딸의 시신을 안장했다. 자신의 젊음과 재능뿐만 아니라 가족마저도 한국을 위해 바친 하디 선교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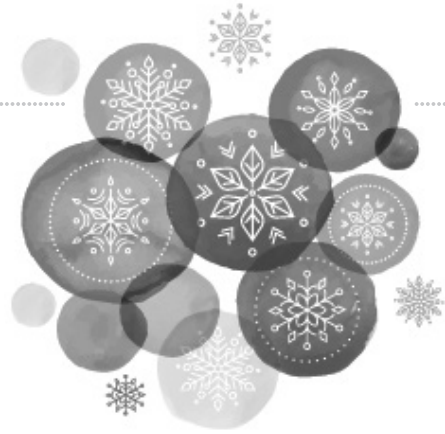
출처 [HTTP://LIKUMC.ORG](http://LIKUMC.ORG)

사진 출처 [HTTP://THESPIRIT.CO.KR/HIS_1903/214](http://THESPIRIT.CO.KR/HIS_1903/214)

편집부 정리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이야기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잊은 이 시대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크리스마스의 영원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온누리에 전하며 오래 참음호 특별 기획으로 임마누엘 성도들의 어린 시절, 우리들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추억을 주제별로 정리해 보았다.

[새벽 송]

*어린 시절 다니던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중고등부와 청년부들이 함께 새벽 송을 돌던 생각이 납니다. 트럭 짐칸에 모두 타고 추운 바람 맞으며 교인들 가정에 찾아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집 안에 불이 켜지며 큰 사탕 봉치를 선물로 주셨지요. 그 사탕을 모아 홀로 사시는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강한나)

*어렵풋한 기억 동네 이곳저곳 모르는 집집마다 찾아가 새벽 송을 돌며 예수님 오심을 전하다 학교 친구를 만난 기억, ‘아, 이 친구가 여기 살고 있었구나...’ (정용익)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기억은 ‘새벽 송’입니다. 한국은 집들이 다닥다닥, 웅기종기 모여 있기에 청년들이 함께 성도님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캐럴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과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신앙 선배들의 간증을 듣던 그 기억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새록새록 떠오르곤 합니다. 하나님도 그때 우리의 새벽 송을 기억하시겠지요? (강한솔)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새벽 송을 돌면, 따뜻하게 코코아를 타주시거나 따뜻한 것 사 먹이라며 용돈을 주시던 집사님들의 손길이 기억납니다. (안중훈)

[크리스마스 찬양]

*제가 초등학교 시절, 성탄절 때마다 교회에서 특송을 불렀습니다. 어린 제가 자랑스러웠던 엄마는 일년에 한 번 제 특송을 듣기 위해 교회에 오시곤 했습니다. 지금은 권사님이신 엄마와 그 시절 이야기를 가끔 나누며 웃기도 합니다. (정주영)

*어린 시절, 아이들을 따라 교회에 가서 찬양 배운 것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오래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정숙)

*징글벨 징글벨 종소리 울려! 크리스마스 캐럴은 나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항상 설렙니다. 요즘은 크리스마스의 캐럴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늘 이 계절이면 들려오던 크리스마스 캐럴이 전 언제나 그립습니다.

*At CHRISTMAS, WE GO TO CHURCH AND SING CAROLS AT WILL, AND ANGELS WOULD SING ALONG WITH US. THEN THE JOY, PEACE AND SPIRIT OF CHRISTMAS FILL THE EARTH AND THE HEARTS OF MEN. (KYUNG UI SUH)





[크리스마스 공연]

*유년부 시절, 어른 예배에 참여해서 찬양과 연극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조종연)

*동방박사 역할 중에, 동방 박사 그릇 역할 맡아서 대사 없이 서 있었음. 처음부터 끝까지! (이산돌)

*대학 때 예수님을 믿게 된 후, 크리스마스 때 처음으로 부모님을 교회에 모시고 갔었습니다. 칸타타를 부모님과 함께 보게 된 감동과 멋진 공연을 준비했던 교회에 고마웠던 기억입니다. (한연선)

*6학년 때 크리스마스 공연에 남자애들이 없어서 제가 예수님을 했어요. 머리가 길어서 예수님 같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인애)

*고등학교 때 문학의 밤에서 콩트를 했었는데 너무 재미있었던지 친구 교회에서 찬조 출연 요청을 받고 다른 교회에 원정 가서 문학의 밤 때 찬조 공연한 일. (고석진)

*학생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발표회를 했었는데, 시골인지라 이렇다 할 문화행사가 없었던 터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교회 발표회는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발표회 준비 연습이 끝나고 나면 밤이 늦어져서 멀리 사는 여학생 친구들을 데려다줬는데 조를 짜서 에스코트를 하곤 했었다. 시골이라 차가 없어서 약 1~2시간을 걸어서 배래다주고 오면 새벽 1~2시가 되곤 했었는데 학창시절 한창때라 갖다 오고 나면 배들이 고파서 자취하는 형들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고 웃고 떠드는 가운데 날 새는 줄 모르고 했다. 하나님과의 추억과 중고등부 학창시절 때의 믿음의 추억, 그때가 그리웠다. (위현량)

[크리스마스 선물]

*중고 스케이트를 사서 칫솔로 닦다가 저와 눈이 마주친 어머니. 그 이후로 산타 할아버지의 실체를 알게 되었지만, 어머니의 사랑만은 영원히 납니다. (박성호)

*빨간 장화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굴속에서 내려와 머리맡 양말에 두고 가신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과자 종합세트도 두고 가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영기)

*어릴 적, 오빠와 크리스마스 전날 오징어 과자를 놓고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 과자 선물 세트와 오징어 한 마리씩이 놓여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산타 할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경험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교회 방문]

*믿지 않은 집안의 영향으로 크리스마스에 대한 마음이 없었으나 고등학교 친구의 초대로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한경)

*어린 시절 교회에 다니지 아니했기에 1년에 한 번 교회에 가는 유일한 날이 크리스마스였다. 큰 눈썹 사탕을 받았던 기억,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아무 뜻도 모른 채 불렀던 기억, 새벽 송을 부르며 대문 앞에서 계셨던 성도님들을 본 기억, 그 잔치의 참여가 오늘의 제가 되었던 거름이 되었을까요? (김혜경)

*크리스마스 때면 교회를 갔다. 가면 맛있는 것을 듬뿍 쥐여 주기 때문에. 그러다가 주일학교에서 친구들과 사귀는 재미, 선생님들의 친절함 보살핌에 넘어가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교인이 됐다. (최인화)

*믿는 가정이 아니었기에 성탄절 기억이 남아 있지 않지만, 성탄 새벽 추위를 무릅쓰고 새벽 송을 돌았던 기억... 그때는 뜻도 모르고 왜 기쁘지도 모르고 그렇게 다녔지만, 그래도 40여 년의 지난 세월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귀한 추억이 되어 남아있네요.

*IT IS JESUS BIRTHDAY AND THE GOOD MEALS AND THE CHRISTMAS TREES. (AMY PARK)

편집부 정리

2017 임마누엘 7대 뉴스

“2017 임마누엘 7대 뉴스”는 올 한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의 발자취를 따라 감사하는 시간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벤에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3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손글씨로 정성껏 써 주신 카드를 토대로 만든 우리들의 뉴스입니다.



1. 5개 평원으로 목장 재편성 (70%)

지난해 목장 안식년과 전교인 성경 일독의 해로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올해 우리 임마누엘 가정교회는 모든 한어권 장년들은 지역별로 5개 평원(산호세, 동부, 서부, 남부, 북부)으로 나눠 목장 재편성을 하였고, 장년 평원 외에 에녹회 평원과 청년부 평원 등 2개의 특수 평원이 있다. 올해는 125명(장년 104, 에녹 9, 청년 12)이 새로 목자로 헌신하여 목자 임직을 받았고, 모든 목장은 “목장 참여 신청서”를 낸 가정만으로 편성했으며, 목장 이름도 후원 선교지 이름을 따라 정하였다. 올해는 영혼 구원의 해로 목장마다 잃은 영혼을 찾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VIP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목장에도 초청함으로써 올해는 목장을 통해 세례받은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2. 유스 2부 예배 시작과 유년부 신설 (65%)

2-1

중고등부 2부 예배(11:45)가 3월부터 시작되어 브라이언 황(황유민) 전도사님이 담당하고 계시며, 1부 예배는 종전처럼 김승균 목사님이 담당하고 계신다. 두 번의 예배를 드리되 하나의 유스부로 기존의 REST대신 “토요 제자 훈련”이나 수요 디사이플십 같은 주 중 모임과 수련회, 단기 선교 및 각종 이벤트와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마련하신 유스 2부 예배가 점차 아름다운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다.

2-2

기존의 유치, K-1 부를 유치부와 유년부 2개로 나눠 9월 첫 주부터 유치부(만 3세~KINDERGARTEN)는 김숙경 전도사님이 담당하시며, 유년부(1~2학년)는 송호영 전도사님이 섬기고 계신다. 그동안 유치, K-1 부가 연령 차이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연령을 세분화하여 2개 부서로 나눔으로 눈높이에 맞춰 좀 더 섬세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 텔런트 신애라 집사 간증 VIP 초청 잔치(59%)

10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신애라 집사 간증 VIP 초청 잔치가 열렸다. 첫날은 VIP를 모시고 온 성도들만 본당에 입장할 수 있었고, 주일 3부 때는 성도들을 위해 간증 시간이 있었다. 올해 우리 교회 “내 평생에 한 영혼을 구원하자”라는 포어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온 교회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64명의 소중한 VIP를 잔치 자리로 보내주셨다. 첫날 VIP들의 눈높이에 맞춘 신애라 집사의 잔잔한 간증과 복음 제시, 뮤지컬 배우 류승주 자매의 특별한 찬양은 잔치의 풍성함을 더했고, 이날 참석한 VIP 가운데 15명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큰 기쁨의 자리였다.

4. 이영기 목사님과 EM 담당 DAVID MOON 목사님 부임(50%)

8월 1일에 부임하신 이영기 목사님은 동부 평원과 지역 봉사 위원회를 담당하고 계신다. 일 년 새 동부 평원은 교역자가 몇 번 바뀜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또한, 지난 9월 20일 영어 회중 담당 교역자로 부임하신 데이빗 문 목사님은 10월 14일 PCA 수도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으며, 현재는 EM과 영어 대학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제 우리 교회도 KM과 EM이 하나 되어 함께 사역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의 진정한 부흥을 꿈꾸고 있다.

5. 올리브 블레싱(33%)

목장 자율 사역이 끝나고 하반기 목장이 시작되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올리브 블레싱이 시작되었다. 올리브 블레싱은 “네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다 (YOUR CHILDREN WILL BE LIKE OLIVE SHOOTS AROUND YOUR TABLE)” (시 128:3, NIV) 하신 말씀에서 따온 이름이다. 자녀들은 단지 부모를 따라와 시간만 때우는 덤의 존재가 아니라, 목장 핵심 구성원이자 영적인 미래이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음을 전수해야 할 다음 세대들이다. 올리브 블레싱을 통해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하며 반복적으로 복음을 심어 주어야 하며, 부모의 믿음을 대물림받은 자녀들이 참 제자로 세워져 가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목장 최고의 목적이며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15일 주일 오후에 어린이 목자 첫 임직식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결단하는 26명(3~5학년: 12, 6~8학년: 10, 9~12학년:4)의 어린이 목자들에게 임명장 수여와 꽃다발 증정 및 사진 촬영이 있었다. 자녀 교육 준비팀에서는 매월 어린이 목자 훈련 때마다 각 목장의 한달 분량 교재 및 준비물 일체를 어린이 목원 수에 맞게 준비해 주고 있다.

6. 43명의 신입 직분자 선출(22%)

6월 4일 공동의회에서 43명(장로 4, 안수집사 25, 권사 14)의 신입 직분자 후보가 선출되었으며, 피택된 43명의 직분자들은 직분별로는 장로 피택 4명, 안수 집사 인준 6명, 안수 집사 피택 19명, 권사 인준 1명, 권사 피택 13명이다. 피택자들은 성도의 본이 되며 교회의 하나 됨과 화평에 힘쓰고 영적인 실력과 거룩한 영향력을 겸비한 신실한 청지기로 쓰임 받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있다. 직분자로서 신앙의 기본을 확립하며 교회관을 정립하고 섬김의 자세를 훈련하기 위해 매일 피택자 훈련 일기 쓰기를 비롯한 공동체 훈련을 받았다. 매월 담임 목사님 및 여섯 부목사님으로부터는 피택자들이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영적 교육을 받았고, 장로님들로부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위원회와 가정 교회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43명 모두 “순종, 순종, 순종”이라는 주제로 6개월(6~11) 동안 성실히 훈련을 마쳤으며, 1박 2일(12/1~2)간 세계 금식기도원에서의 합동 훈련을 끝으로 12월 10일 임직 예배를 드렸다.

7. 24시간 기도의 집 오픈과 단기 선교 활성화 (20%)

7-1

우리 교회는 5월 1일부터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 대예배실을 24시간 개방했다. 기도의 집이 오픈되면서 밤낮없이 자유롭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나처럼 기도에 갈급함을 가진 자들이 기도의 집에 와서 부르짖을 때 우리 교회뿐 아니라 북가주와 미국 전역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며 그 타오른 불길이 진정한 회개로 이어져 영적 불모지와 같은 실리콘 밸리 부흥에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는 24시간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7-2

올해 우리 교회 단기 선교는 전, 후반기로 나눠 전반기에는 지난 6월 도미니카와 뉴멕시코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7월에는 네팔과 중고등부 2개 선교지였던 샌프란시스코와 멕시코 등 5개 선교지로 단기선교를 다녀왔고, 후반기에는 9월 중국 단기 선교를 비롯해 11월 아이티, 12월에는 아리조나 나바호와 멕시코, 인도 선교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청년 세대와 장년 세대와의 연합 선교로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화합을 이룬 바람직한 선교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선교의 방향이기도 하다.

7대 뉴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은혜로운 뉴스들도 많이 있었다. 지난해 안식년을 보내고 2월에 개강한 봄학기 성경학교부터 가정교회 기존 삶 공부인 1단계 생명의 삶, 2단계 새로운 삶, 3단계 경건의 삶 외에 4단계 확신의 삶(일대일 성경 공부)이 도입되었고, 목자/목녀의 삶, 기도의 삶을 비롯한 다양한 선택 과목이 생김으로 성경학교 커리큘럼이 활성화되었다. 4월부터는 사랑교육부에서 장애 아동을 섬기는 사역과 장애인 예배가 시작되어 서경의 전도사님이 섬기고 계신다. 5월에는 올랜도 비전교회 김인기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하여 “뭔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란 주제로 목자, 부목자 수련회가 SCOTT VALLEY, MISSION SPRINGS CONFERENCE CENTER에서 있었고 지금까지 목자/부목자 수련회 중 최대 인원인 26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목자 자녀들을 위한 수련회도 함께 진행되었다.

목장 자율사역이 시작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신앙위원회 주최로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심야 기도회가 열렸다. 1, 2부로 나눠 1부는 손원배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셨고, 2부는 박성호 목사님이 인도하셨다. 매번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과 뜨거운 찬양과 기도와 은혜로운 간증이 있는 시간이었다. 어느 목장은 심야 기도회 때마다 모든 목장 식구들이 참여하여 무더위로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 시간을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시간을 보냈으며, 이웃 교회에서도 우리 심야 기도회 소문을 듣고 참여하신 분들도 있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심야 기도회였지만 기도의 목마름이 컸던 만큼 그 열기도 아주 뜨거웠던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었다. 그 밖에 소수의 소리이긴 하지만 화요 여성 예배의 새로운 개편, 여름 VBS, 북가주 교회 대항 체육 대회 우승, 가족사진 촬영, 상담 학교 개설, 예복 효도 관광, 베데스다 피크닉에 대한 은혜도 적어 주셨다.

이번 임마누엘 7대 뉴스를 준비하면서 미미해 보이는 일 하나하나도 하나님 은혜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아주 작고 세밀한 일조차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로 이루어졌으며, 한해를 돌아보며 지금 우리가 감사하기까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수많은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었음을 더욱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글 김정신 (남부 평원 브니엘 목장 부목자, 편집부장, 예배 1부 안내팀)



원대한 비전에 삶을 던지라

원래 베드로는 남은 평생 어부로 먹고 살 계획이었을 것이다. 베드로의 고향은 바닷가였고 밀물과 썰물, 바람, 파도, 소금물, 고기잡이, 이것이 베드로가 아는 전부였다. 하지만, 주님의 청사진은 베드로의 깊은 내면을 뒤흔드셨다.

예수님의 초대가 얼마나 매력적이었기에? 여러 복음서를 보니 베드로는 생계와 일상, 심지어 가족까지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다. 예수님이 제시한 기회는 일생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소명이었다. 잃은 자를 찾고, 자원이 부족한 자를 섬기며, 잊혀진 자를 사랑하는 일, 나는 이런 소명을 따르는 삶을 '원대한 비전의 삶'이라고 부르고 싶다. 지금도 주님은 원대한 비전에 삶을 던질 만한 사람의 배에 오르고 계신다. 이를테면 내 친구 척 콜슨 같은 사람의 배로 말이다.

척 콜슨은 1969년부터 1973년까지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 고문으로 일했다. 그는 오랫동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력과 특권의 중심에 서 있었다. 누가 봐도 그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영위했으며 미국의 내로라하는 인물들이 그의 주위에 구름같이 포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상이 겉보기와 항상 같은 건 아니다. 콜슨은 악명 높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앨라배마의 한 감옥에서 7개월간 고생해야 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정상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회복이었으니 사실 낙락으로 떨어지기 전부터 콜슨은 삶의 의미를 절실히 찾아 헤맸다. 그러나 아쉽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 있는 탐구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의미 탐구는 그에게 대학 교육, 학문적 명성, 군인으로서의 위치, 법학 학위, 심지어 겨우 39세에 미국 대통령 최측근 자리를 안겨 주었다. 하지만, 이 모든 명예의 한복판에서도 공허와 무의미와 절망은 사라지지 않았고 세상의 어떤 명예도 영혼의 가려움을 긁어 주지는 못했다.

사업가 친구와 나는 심오한 대화에다 C.S.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의 강력한 힘이 더해져 그는 결국 그리스도께 삶을 바쳤다. 화려했던 과거를 훨씬 뛰어넘는 미래로 첫 발걸음을 떼는 순간이었다. 원대한 비전에 사로잡힌 콜슨은 전과자를 그리스도께 이끄는 데 여생을 바쳤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전과자들을 가장 어두운 감옥, 곧 영혼의 감옥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이다. 그를 만난 수감자들은 목적과 포용과 소망을 경험했다. 그의 저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는 콜슨이 전과자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 바친 20년 이상의 여정이 담겨 있다.

편집부 정리

출처 |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빌 하이벨스 저)_중에서

예수님을 노래하는 크리스마스 애피타이저 이야기



크리스마스는 추운 겨울에 찾아오는 동시에 일년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축제의 자리는 항상 정성들인 음식들로 함께 합니다. 맛있고 건강한 재료에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크리스마스트리, 크리스마스 리스, 빨강, 녹색 등의 시각적 요소를 가미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예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애피타이저 들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재료만 준비하면 아이들과 함께 근사하게 꾸밀 수 있는 메뉴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식탁을 꾸밀 수 있으실거예요.



풀어파트 (PULL APART) 크리스마스 트리 브레드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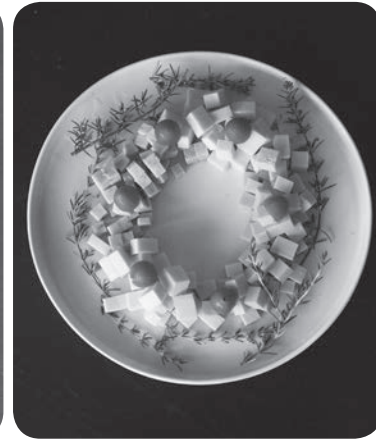
- 냉동 피자도우 1파운드
- 버터 ¼ 컵
- 모짜렐라 스틱 7개
- 파마잔 치즈 1/2컵
- 베이즐, 파슬리, 로즈마리 조금
- 계란물
- 마리나라 소스

만드는 법

1. 오븐을 450도 화씨로 예열합니다.
2. 오븐이 예열되는 동안 모짜렐라 스틱을 1인치 길이로 각각 잘라놓습니다.
3. 피자도우는 긴 방망이 모양으로 성형한 후, 가로 세로 2인치 길이로 잘라 모두 33개의 도우를 만들어 놓으세요
4. 각각의 피자도우에 잘라놓은 모짜렐라 스틱을 각각 한개씩 넣어 감싸안듯이 동그랗게 말아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파치먼트 페이퍼를 올린 오븐팬에 올려놓습니다. 이때에 여민부분이 아래로 가게 하세요.
5. 도우 표면에 계란물을 바른다음 예열된 오븐에 15~20분 표면이 노랗게 될 때까지 굽습니다.
6. 녹인 버터와 파마잔 치즈, 각종 허브를 섞어 구워진 빵에 바르고 따뜻한 상태에서 서빙하세요.
7. 하나씩 떼어서 흘러내리는 치즈와 함께 마리나라 소스에 찍어서 드세요.

크리스마스 장식 플래터

각종 치즈와 살라미, 페퍼로니 등의 햄류, 빨간색 야채 및 과일 (딸기, 토마토, 당근 등), 녹색 야채 및 과일 (브로컬리, 오이, 피망, 샐러리 및 로즈마리 등의 허브) 등을 이용하여 크리스마스 트리와 리스 모양의 애피타이저 한접시를 꾸밀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야채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일지라도 직접 플래터를 꾸미고 나면 하나둘 집어먹는답니다.



파인콘 아몬드 치즈볼

재료

- 베이컨 5줄
- 다진파 1테이블스푼
- 로즈마리 조금
- 마요네즈 1/2컵
- 크림치즈 한개 (8oz)
- 아몬드 1 ¼ 컵

만드는 법

1. 350도로 예열된 오븐에 아몬드를 15분간 로스트합니다.
2. 크림치즈와 마요네즈를 푸드프로세서나 블랜더로 섞으세요
3. 구워서 조각으로 잘라둔 베이컨과 다진파를 치즈 믹스처에 섞으세요.
4. 치즈 믹스처를 냉장고에서 여섯시간 이상 냉장합니다.
5. 냉장된 치즈 믹스처를 두개의 파인콘 모양으로 성형하여 아몬드로 장식합니다. 이때, 아몬드의 뾰족한 분이 위로 오도록 꽂으세요.
6. 접시에 담고 로즈마리로 장식한 후 크래커와 함께 상에 올리세요

글 김연희 (북부 평원, 폴라 목장, 편집부 편집팀)

내게 고통을 주신 주여

송명희

내게 고통을 주신 주여
내가 감사하나이다

만일 내게 고통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주님의 고통도 알 수 없었으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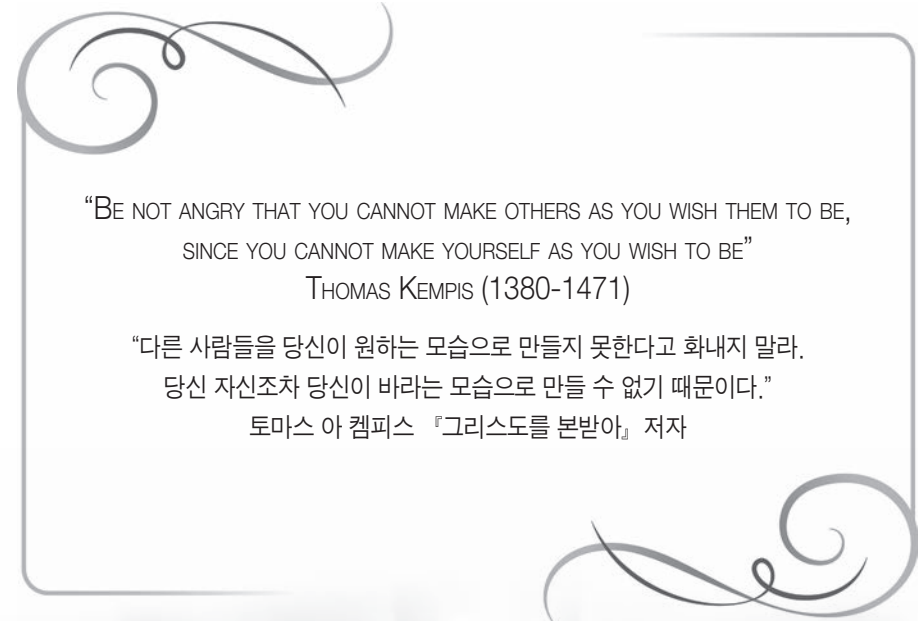
그리고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니이다

고통이 지금 괴로워 보이나
후에는 고통이 영광이 되고
장차는 십자가가 면류관 되니이다

그때에는 주께서 나의 숙인 머리를 드시며
눈물로 적시어 있던 나의 눈을 닦으시리이다

그러므로
내게 고통을 주신 주여 감사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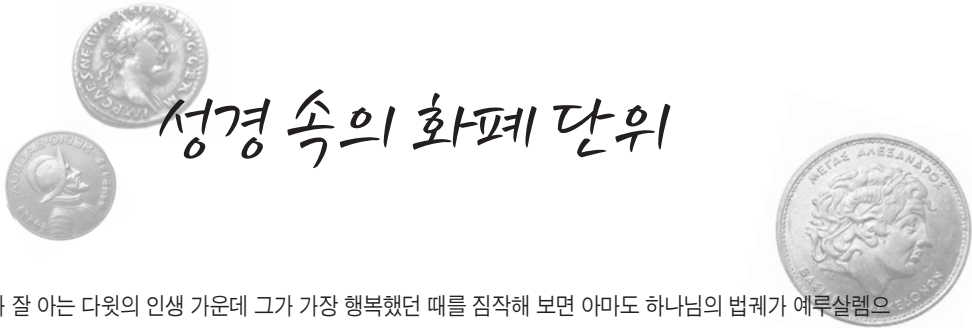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 119:71)



“BE NOT ANGRY THAT YOU CANNOT MAKE OTHERS AS YOU WISH THEM TO BE,
SINCE YOU CANNOT MAKE YOURSELF AS YOU WISH TO BE”
THOMAS KEMPIS (1380-1471)

“다른 사람들을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지 못한다고 화내지 말라.
당신 자신조차 당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토마스 아 켐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자





성경 속의 화폐 단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가 가장 행복했던 때를 짐작해 보면 아마도 하나님의 법제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던 때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때 정신없이 기뻐서 춤을 추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하체가 드러나는 줄도 몰랐을 정도니까요. 마음이 기뻐던 다윗은 그 법제를 둘 수 있는 성전을 짓기를 원하였습니다. 자신은 백향목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제가 천막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때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것은 최선을 다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도 준비하고, 주변 나라들과의 평화 속에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역대상의 마지막 장 29장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였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윗왕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가문 지도자들의 모든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드렸습니다.

드린 물품은 금, 은, 놋, 철과 나무, 또 마노와 각종 보석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며,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었으며, 백성이 성심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또한 다윗에게도 기쁨이 되었다고 역대상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드린 금은 다윗이 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 순은 칠천 달란트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금 오천 달란트, 금 만 다릭, 은 만 달란트, 놋 만 팔천 달란트와 철 십만 달란트, 그리고 각종 보석을 드렸습니다.

달란트라는 무게 단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고학에서는 달란트의 무게를 20kg 에서 40kg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성경의 금 단위에 사용한 달란트의 무게는 30. 2kg 으로 보고 있습니다. (BY WEIGHT AND MEASURE CONVERTER OF LOGOS BIBLE SOFTWARE) 그럼 한 달란트의 지금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금 1g 의 가격에 30,200을 곱하면 금 한 달란트의 지금 가치가 될 것입니다. 10월 19일 오늘 금 가격은 1g에 41.41 달러네요. 그럼 한 달란트의 가치는 1,250,582달러가 됩니다.

다윗이 드린 금이 3000달란트이니 거기에 3000을 곱하면 약 375억 달러가 됩니다. 세계 제일의 부자인 빌 게이츠의 자산이 약 800억 달러라고 하니 다윗이 얼마나 많은 가치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아시겠죠? 백성들이 드린 금은 오천 달란트와 만다릭이었습니다. 다릭도 무게의 단위입니다. 한 다릭은 8.5g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은 그렇게 많은 금과 은, 동, 철 그리고 각종 보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음이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전을 사람을 위하여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전을 위하여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만큼 드릴 수 없어서 실망이 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것이 많고 적음을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과부가 헌금함에 두 렘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렘돈은 데나리온을 80볼로 보았을 때 70센트입니다. 두 렘돈은 1볼 40센트가 됩니다. 다른 부자들도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과부가 두 렘돈을 넣자 그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얼마나 가진 사람이 얼마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위하여 수많은 금을 드린 다윗도, 그리고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과부도 하나님을 기뻐하셔서 드린 것이면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의 화폐 단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유대의 단위	로마의 단위	헬라의 단위
게라 - 세겔의 1/20	고드란트 - 앗사리온의 1/4	렘돈 - 로마 고드란트의 1/2
베가 - 세겔의 1/2	앗사리온 - 데나리온의 1/16	드라크마 - 하루 품삯
세겔 - 금일 경우 일반 노동자의 60일 품삯 은일 경우 일반 노동자의 4일 품삯	데나리온 -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	
므나 - 달란트의 1/60		
달란트 - 6,000드라크마		

글 박기한 목사 (남부 평원, 행정, 관리 위원회 담당) | 자료 출처 : 한국 컴퓨터선교회





이제 성탄절이 지나면 연말이 됩니다. 절기를 헤아리다 보면, 한해가 금방 갑니다. 그리곤 새해가 다가오겠지요. 새해는 한국이나 미국 모두 즐거운 명절입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즐기는 명절이지요. 이스라엘에서도 새해를 축하합니다. 우리는 새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미국인들도 “HAPPY NEW YEAR” 하고 인사를 하죠. 유대인들도 “샤나 토바(좋은 새해)”나 “레샤나 토바 트카데 부(새해에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라고 인사하곤 합니다.

유대 땅엔 새해가 3번 있습니다. 세 가지 달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선, 요즘 우리가 쓰는 태양력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 사람들이 출애굽 이전부터 민간에서 사용하던 민간력이 있고요. 민간력의 새해는 태양력으로 9월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력이 있는데 출애굽을 기점으로 새로 만들어진 달력입니다. 출애굽(유월절)을 새로운 한해의 시작으로 보는 달력입니다. 태양력 4월이 종교력의 새해가 됩니다. 그러나, 종교력의 신년은 유월절과 겹치기 때문에, 따로 신년의 의미를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양력의 신년과 민간력의 신년(태양력 9월, 종교력 7월)을 지냅니다. 신년을 히브리어로 로쉬 하샤나(ROSH HASHANAH)라고 부르는데요. “그해의 머리(HEAD OF THE YEAR)”란 뜻입니다. 머리가 몸을 컨트롤하듯이, 신년이 그해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7년은 신년이 9월 20~22일이었습니다. 이 신년 명절 뒤에 대속죄일(YOM KIPPUR)과 초막절(SUKKOT) 행사가 뒤따릅니다.

신년의 의미

유대인들은 신년에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첫째, 시작의 날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7월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 신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 것이지요. 둘째, 심판의 날입니다. 새해를 지내고 10일 뒤면 대속죄일이 됩니다. 그래서 새해는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자연히 새해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의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사건과 신년을 연관시킵니다.

신년과 나팔절

신년은 뿔나팔(쇼페르)을 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년을 나팔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삭을 제사 지낼 때 수풀에 걸렸던 그 수양의 뿔을 생각하면서 뿔나팔을 부는 것이지요.

직접적으로,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팔절을 지키길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칠월(종교력 7월, 태양력 9월)에 이르러는 그 달 초일 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민 29:1)”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양각 나팔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천연 관악기중 하나일 것입니다. 속이 빈 수양의 뿔로 만듭니다. 그래서 뿔 모양대로 휘어져 있습니다. 이 나팔은 제사장만이 불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에 영원한 율례니라(민 10:8).”

이스라엘에서 나팔은 몇 가지 중요한 순간에 사용되었습니다. 우선, 국가적인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회중을 소집하거나 진의 행진할 때(민 10:2), 각 지파의 리더들을 소집할 때(민 10:4), 전시에 군대를 소집하고 대적을 치러 나갈 때(민 10:9), 위험이 닥치는 것을 경고하거나 신호를 보낼 때(렘 6:1, 느 4:20) 나팔을 불었습니다. 위험이 닥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은 요즘 SIREN을 울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팔은 종교 행사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월삭과 절기를 알릴 때(민 10:10),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출 19:16), 왕의 즉위를 포고할 때(삼하 15:10, 왕상 1:34) 나팔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특별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는 악기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헌당식(대하 5:12-13)이나 히스기야의 성전 청결(대하 29:26-28)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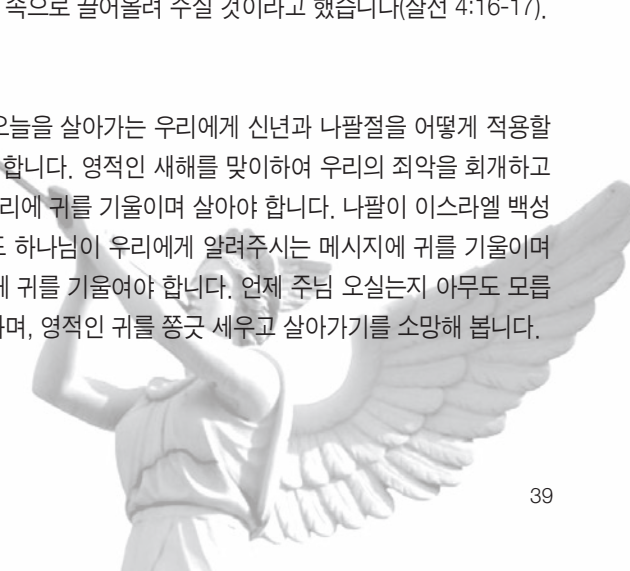
예수님과 나팔

나팔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곳곳에 나팔이 등장합니다.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재림과 나팔이 연결되는데요. 재림 때에 ‘큰 나팔 소리’(마 24:31)과 ‘하나님의 나팔’(살전 4:16)이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나팔’(고전 15:51)이란 표현은 ‘일곱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계 11:15)을 뜻하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 소리 가운데, 여섯 번째까지는 재앙을 알리는 소리이지만,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팔 소리는 성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재림하실 때, 주님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마 24:31). 바울은 설명하기를, 주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인데, 그 때 죽었던 자들을 일으키시고, 살아있던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살전 4: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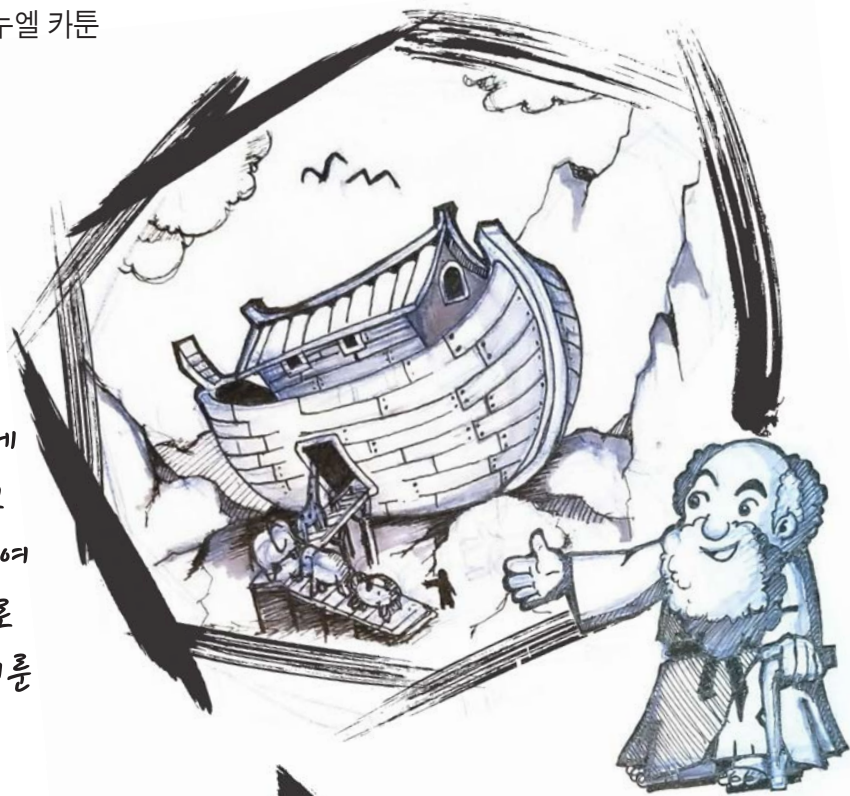
나팔과 우리

신년이나 나팔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년과 나팔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영적인 신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영적인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새 출발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나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재림의 나팔이 울리 퍼지길 기대하며, 영적인 귀를 쫓고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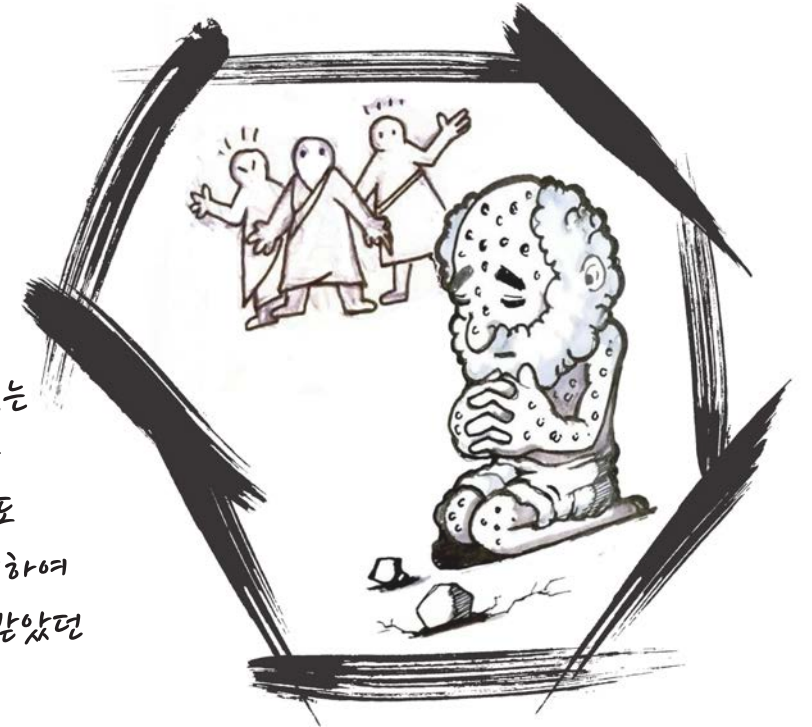
글 김인한 목사(동부 평원, 선교 위원회 담당)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고
오랜시간 인내하여
만들어낸 방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룬
노아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여
마침내 더 큰 축복을 받았던
용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참고 견디어
가나안으로 백성을 인도해낸
모세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이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온갖 고초와 고난을
참아내고 이겨내신
우리 예수님처럼..



슬픔의 노래도 부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우고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6-18).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이 가능하거나 한 일일까? 살다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오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것일까?’ 잘은 모르겠지만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고 그것이 죄를 짓는 삶은 아니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듭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우울질(MELANCHOLY)적인 기질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 마음의 안정을 취할 때는 대부분 조용한 재즈 음악이나 바흐의 현악기들로 마음을 다스릴 때가 많습니다. 키스 자렛이나 브래드 멜다우 같은 뮤지션들이 플레이리스트에 올라가 있을 때가 많고요. 물론 찬양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찬양 앨범을 듣다 보면 어느새 마커스나 어노인팅의 사역자들이 부르는 안정적이고 잔잔한 발라드 곡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저에게 ‘예배 곡을 선곡할 때 너무 MELLOW 한 찬양곡들을 고른다’며 직설적으로 코칭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천성이 우울질인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웃고, 항상 기쁨의 춤을 추라는 말들은 매우 부담스러운 말로 들립니다. 추지도 못하는 춤을 추어야 하는 것처럼.

한국인의 심성에도 이런 슬픔의 기질이 있는지 우리 가요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 음악인들은 슬픔을 가득 담은 ‘단조’(MINOR)의 멜로디로 자신의 감성을 나타냈고 그런 음악에 대중은 열광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이제는 우리 가요의 핵심적인 장르가 되어 버린 ‘트로트’ 음악의 대부분도 단조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정서가 잘 나타납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나 ‘돌아와요 부산항에’ 같은 음악에 담겨 있는 이 슬픔의 정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쁨의 정서를 간직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무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하하 웃으며 슬픔을 참고 억지로라도 기뻐하라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는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 찾아가갈 수 있습니다. 시편은 아시다시피 150편의 시들로 구성된 책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73개 정도의 시편 서언에 다윗이라고 기록됨) 많은 저자들의 시로 구성되어 있지요. 시편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시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시’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150편 중에서 약 65편이 넘는 시들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아픔과 탄식, 애통과 한탄을 노래하는 ‘탄식 시’(PSALMS OF LAMENT)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12, 44, 58, 60, 74, 79, 80, 83, 85, 94, 123, 126, 129, 137편의 ‘공동체 탄식시’들과 3, 4, 5, 7, 13, 14, 17, 22, 25, 28, 35, 41, 42, 52, 53, 54, 55, 56, 59, 61, 64, 69, 77, 86, 88, 109, 120, 140편의 ‘개인 탄식시’들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대략 시편 전체의 40%가 넘는 시들에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보다는 누군가의 억울한 모략 때문에 눌러 있는 자신의 비참함을 표현하던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한없이 눈물 흘리는 마음이 담겨 있던가, 아니면 자신을 못살게 구는 원수들을 제발 좀 양갈음해달라는 식의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들이 표현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슬픔과 탄식은 우리 믿음 생활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삶이 평화롭고 안정적이지만 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못하고 어느새 나태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마음에 분노와 원망이 먼저 앞서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래도 시편 150편의 시들을 묵상하다 보면, ‘아 우리의 인생과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 똑같이 이들도 원망하고 분노하고 짜증을 냈구나’하는 깨달음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탄식의 시’들은 신앙인의 영적인 지표처럼 자신의 영적인 좌표를 보여주는 노래와도 같다는 사실을. 오직 진정한 믿음의 사람만이 비탄과 환난 속에서도 슬픔의 노래를 마침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의 시로 바꾸는 사람인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는 억지 춘향처럼 슬프고 힘들어도 그저 기뻐 시늉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진실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마침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신앙의 기적을 경험하라는 명령입니다. 슬픔과 비탄 속에서도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안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꿈꾸어 봅시다. 여러분에게 살롬을 전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5)

글 박성호 목사 (북부 평원, 화요 여성 예배, 신앙 위원회 담당)

그리스도인들이 쓰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용어

현재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말 중에 다음과 같은 말들은 무속, 토속신앙, 도교, 불교 등의 사상이나 교리가 담겨 있는 말들로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맞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용어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1. 도로 아미타불

고생만 하고 아무 소득이 없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본래는 중이 평생을 두고 아미타불을 외우지만 아무 효과도 없다는 뜻에서 왔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쓰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2. 부처님 가운데 토막

음흉하거나 요사스러운 마음이 전혀 없고 마음이 지나치게 어질고 순한 사람을 가리켜 '부처님 가운데 토막' 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우리가 피해야 할 말이다.

3. 신선놀음

신선이란 도를 닦아서 인간 세상을 떠나 자연과 벗하여 늙지 않고 죽지도 않고 오래오래 산다는 초월적인 상상의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 편안한 삶을 가리켜 '신선놀음이다'라고도 하는데 이는 우리가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말이다.

4. 도사(道士)

어떤 일에 도가 트여서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도사란 본래 도교에서 도를 갈고 닦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성직자나 직분자에게 이 말을 비유하여 쓰는 것은 삼가야 한다. 예를 들어 '목사님이 길 찾는 데는 도사야' 같은 말은 해서는 안 된다.

5. 신주(神主) 모시듯 한다

신주란 사당 등에 모시어 두는 죽은 사람의 위패를 말하는데 글자 그대로 죽은 사람을 신으로 받드는 민간 신앙에서 온 말로 몹시 귀하게 여기어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다루거나 간직하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신주 모시듯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말은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명당(明堂) 자리

명당이란 민간 신앙의 풍수지리 사상에서 나온 것으로 후손에게 장차 큰 복을 가져다준다는 빛자리나 집터를 말하는데 이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어긋남으로 '여기는 정말 명당자리다' 같은 말은 피해야 한다.

7. 일진(日辰)

날의 간지(干支)를 말하는데 이에 따라 그날그날의 운세가 있다고 믿고 있다. 예로 '일진이 나쁘다', '일진이 사납다'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피해야 할 말이다.

8. 살(煞)

민간 신앙에서 살이란 사람을 해치거나 물건을 깨뜨리는 모질고 독한 귀신의 기운을 말한다. '살이 깐다', '살을 푼다', '살이 내린다' 와 같은 말들을 우리는 쓰지 말아야 한다.

9. 귀신갈다(귀신이다)

귀신을 미화해서 어떤 일을 잘 알고 있다든지 또는 아주 잘 할 경우 이를 '귀신갈다', '귀신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말이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을 이 귀신에 비유하여 '○○ 장로님이 귀신같이 알아맞히시네' 같은 말은 쓰지 말아야 한다.

10. 액(厄)

액이란 '모질고 사나운 운수'라는 뜻인데 '액이 닳친다', '액을 물리친다', '액땀을 한다'와 같은 말은 피해야 할 말이다.

11. 운수(運數), 운(運), 수(數), 재수(財數)

운수, 운, 수는 같은 말로 사전적인 풀이는 '이미 정하여져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운(天運)과 기수(基數)를 뜻하며, 재수란 '재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있을 운수'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런 말들을 피해야 한다. "운이 나쁘다, 운이 없다, 운수 사납다, 재수 없다" 등과 같은 말을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12. 사주팔자(四柱八字)

사주팔자란 '사람이 타고난 한평생의 운수'를 말하며 '팔자'라고도 한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는 "사주팔자를 잘 타고났다, 팔자가 기구하다"와 같은 말을 써서는 안 된다.

13. 터줏대감

민간 신앙에서 터주란 '집터를 지키는 지신, 또는 그 자리'를 말하는데 가마니 같은 것 안에 베 석 자와 짚신 따위를 넣어서 달아 두고 위한다. 이 터주에 관련된 말로 집단이나 구성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람을 가리켜 '터줏대감'이라 하는데 이 말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14. 손

민간 신앙에서 손이란 날짜에 따라 방향을 달리하여 따라다니면서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귀신을 뜻하며 초하루와 이틀은 동쪽, 사흘과 나흘날은 남쪽에 있다고 하며, 9일과 10일에는 손이 없는 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날짜를 따져서 '내일은 손이 없는 날이니 이사하자', '내일을 손이 있는 날이니 이사하지 말자'와 같은 말을 하는데 이런 말들을 하거나 이를 따러서는 안 된다.

15. 운명

운명이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해 이미 정해진 목숨이나 처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 우리는 '운명'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운명에 맡기다', '모든 것이 운명에 달려 있다' 와 같은 말은 쓰지 않아야 한다.

출처: 『변경된 새로운 기독교 용어』 _ 한국 장로교 출판사

편집부 정리 및 편집

'서른이 넘어서 더 행복한 아이로 키우기 원하는 부모님들께 전합니다'

1. 조기 교육보다 '조기 감통'이다!

미국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한국에서 영어 학원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어릴 때 비범했는데, 서른이 넘어서는 평범 혹은 그 이하의 삶을 살고, 어떤 아이는 어릴 때는 별 볼일 없었는데 후에 뛰어난 삶을 사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어릴 때와 30대 이후 삶이 달라진 이유가 뭘까? 30대 이후 행복한 아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하통') 과 부모님과의 감정 소통 (부모와의 '감통')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통 감통'이 부족한 아이일수록 성적과 상관없이 성인 이후 인생이 힘들어질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부모님들은 흔히 자녀들의 성취 능력과 점수에 너무 신경을 쓰느라 정작 아이의 마음에는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이 존중되지 않고, 공감 없이 무시당할 때, 세상의 전부로부터 거부 받는 느낌을 받고, 자존감에 균열이 갑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인 됴이라 (사 41:10)." 감정은 우리의 일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기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조기 감통', 즉 자녀와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통'을 충분히 경험하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고, 대세에 기죽지 않고, 남과 비교하며 스트레스받지 않으며, 결국 자기 길에서 성공합니다.

2. 자녀와 감통하는 3가지 방법

첫째, 아이의 제 나이 때를 뛰어넘지 말자

선행학습을 과하게 하면, 아이의 감정은 보이지 않고 아이의 수행력만 보게 됩니다. 아이의 속사람은 보이지 않고, 겉사람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 선행학습은 1학기 때 배울 것을 겨울방학 때 미리 훑어 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학생에게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시키면, 그것은 달달 외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작, 수학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제 나이 때가 아니면 제대로 소화하기란 어렵고, 그러다 보면 부모님은 더 초조해집니다. 공부를 열심히 시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와 소통은 단절되고, 아이의 자존감을 망쳐가면서까지 과속 교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 각자에게 맞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따를 때에, 아이도 더 높이 비상하게 됩니다.

"법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전 3:1, 11)"

둘째, 공교육 현장을 신뢰하라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감통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느라 정작 부모는 아이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학교 교육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육에 좀 더 신뢰를 주도록 해봅시다.

셋째, 존경받는 부모가 되라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 듣게 할지 궁금해하십니다. 부모가 힘이 있으면 말을 잘 듣습니다. 이 힘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강한 힘 (최초리, 고함, 협박, 용돈, 사회적 지위, 카리스마)이고 두 번째는 진짜 강한 힘 (신뢰, 존경심)입니다. 탁월한 지도자일수록 추종자의 마음을 소리 없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섬김과 희생,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 마이크로소프트의 Bill Gates, 페이스북 북의 Mark Zuckerberg, 구글 창업자인 Larry Page 등도 모두 카리스마와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오히려 말이 없고, 부드럽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듣습니다. 권위하지 않고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합의하려고 나서서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릅니다. 즉, 리더십에 대한 존경심이야말로 권위자의 말을 순종하게 만듭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최상위권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전혀 카리스마가 없거나 권위를 절제하는 분들입니다. 성장 과정 중에 갈등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단지, 집에서 존경할 만한 부모의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도 부모의 충고에 순종하며 성적에도 뛰어난 두각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낮추는 만큼 강한 힘이 생깁니다. 부모의 권위는 자아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으로 얻어집니다.

"...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벧전 5:5-6)".

- 하워드 유 (eMax 영어학원 대표, 골든 게이트 신학교 신학 석사)





				1			2			8			10		
		3								5				18	
	4					9				7					
	6		14				11				12			13	
			15								26				
		17						35			37				
31															
			21		19		20				32		33		
											36				
	23				22										16
													24		
	28					25									
					29								30		
						27							34		

‘임마누엘 퍼즐 다 함께 풀어요’의 정답은 지난 8월에 배부된 임마누엘 화평호를 참고해 주세요.
 답안 제출 마감은 2018년 1월 31일이며, 작성하신 답안은 친교실 입구 오른쪽 편집부 함에 넣어 주세요.
 요. 추첨으로 뽑히신 10분께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 편집부 -

이름(○○평원, ○○목장) : _____, _____ 평원, _____ 목장
 이메일 주소 : _____ 전화번호 : _____

시각 장애인을 대할 때 지켜야 할 에티켓

- 시각장애인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싶을 때는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본인의 의사를 물어주세요.
- 대화할 땐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화에 앞서 먼저 자기 소개를 해주세요. 악수를 하면 말하는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 시각장애인의 지팡이는 본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지거나 옮기지 않습니다.
-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지거나 음식을 주거나 관심을 끌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 길을 안내할 때는 시계방향이나 동서남북 등 명확하게 방향과 위치를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새 • 페인트칠, 문의 위치, 식사할 때 음식의 위치 등을 알려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도울 때는 반보 정도 앞에 서서 장애인이 돕는 사람의 팔꿈치를 잡을 수 있게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뒤에서 밀거나 앞으로 잡아끌지 않도록 합니다.
- 시각장애 때문에 혼자되어 있는 교우가 보이면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시각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는지 늘 살펴보고, 함께 친구가 되고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사랑으로 힘쓰는 KEPC가 됩시다.

사랑 교육부 제공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지혜, 명철이는 누구 것? 예수님 것! 만물은 누구 것? 지혜 명철이 것!

현재 입마누엘 비전 청년부에서 목자로, 샌디애고 갈보리 장로교회 엘콤 청년부에서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두 자녀(92년, 94년생)가 5살, 3살 때부터 가정 예배를 통해 엄마와 함께 노래 불렀던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2006년 12월,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인 두 자녀를 데리고 태평양을 건너 산호세에 정착한 저에게 처음으로 경이롭게 와닿은 것은 바로 만물을 녹색 빛으로 물들이는 캘리포니아의 우기에 펼쳐지는 생명력 넘치는 그린 필드였습니다. 그림처럼 펼쳐지는 녹색 빛 캘리포니아의 만물은 경

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건기가 시작되는 봄부터 누렇게 타들어 가는 캘리포니아의 황금 들판은 마치 사도바울의 가슴에 품어진 복음의 황금 들판과 같은 은혜로 와닿기까지... 이곳 산호세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겨울을 생명력 넘치는 만물로 말미암아 멋지게 펼쳐 보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케 하시는 자의 총만이니라” (에베소서 1:23)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2013년 여름, 수요 찬양팀 드러머로서 수요 기도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드럼 실력을 갈고닦고자 매일 2~3시간 교회에서 드럼 연습을 할 때, 저는 본당 뒤편 유아방에서 한석봉 엄마처럼 아들의 드럼 소리를 들으며 주님께 기도하는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맛보는 만물을 총만케 하시는 자의 총만, 얼마나 벅찼던지요. 또한, 저보다 성품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백배나 여성스러운 제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교사로 CM에서, 목자로 비전 청년부에서 한결같이 섬기고 있음 또한 얼마나 총만한 은혜로 다가오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만물을 총만케 하시는 이의 총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총만의 비밀을 저와 제 자녀들이 누리고 있음이 Amazing Grace입니다. 현재 저는 어린 유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의 배려로 말도 못하는 유아로부터 “그레이스 쌤”으로 불리게 하시며 주님 허락

하신 태평양 건너에서의 만만치 않은 삶을 말씀과 기도로 녹이며 감사와 은혜로 물들이며 잘 지내고 있음 또한 만물을 총만케 하시는 이의 총만이 입마누엘 권속 된 저에게까지 부여집이라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총만을 받으라”(엡 5:18)

성전 맨 뒷줄 기둥 옆에서 기도하는 저를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를 오시는 성도님들은 이미 다 보셨겠지만, 저의 기도 대부분은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총만”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John 3:6, NIRV), 대학 4학년 겨울 방학 때 친구 2명과 함께 산 기도를 갔다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저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미 주변 사람들은 알 수도 있었을 제 마음의 숨어있던 “교만”을 성령님께서 두 친구의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며 저의 교만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시며 피흘리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처절하게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 날 이후로는 성령이 오셔야만 드러나는 믿음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제 신앙의 현주소를 늘 조명하며 성령의 총만을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기도하는 제가 되었기에, 두 자녀를 임신하고 태교를 위한 기도부터 지금까지 제 두 자녀를 위한 모든 기도에도 그 어떤 것보다 ‘성령님과 친밀한 교통을 누리는 자녀’이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이 증인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처절하게 회

개했던 내 안에 깊게 자리 잡은 치명적인 교만 죄가 30년 기도 생활에서도 아직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저의 숨은 죄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면 내 힘으로는 도무지 끊어낼 수 없는 교만 죄를, 정죄하는 사망의 법이 아닌 자유케 하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으므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영혼 구원을 목표로 달려온 2017년을 마무리하며 올해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은혜보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영혼 구원에 앞장선 입마누엘 권속이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도 그 어떤 은혜보다 성령으로 총만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며 감사와 은혜로 제 삶의 빛깔을 물들이는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께, 성령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성도님들께 인사 나눕니다.

글 주은혜 (남부 평원 북한 목장, 신앙부 심방팀장, 호산나 찬양대, 수요 찬양팀 저녁봉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고등학교 2학년 봄, 오랜 질병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해 가을 아버지께서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위로 오빠가 셋인 막내딸로 남부럽지 않게 온갖 사랑을 다 받고 살았던 어린 저에게 닥쳐온 슬픔은, 마치 세상에 홀로 버려진 고아처럼 너무나 막막하고 앞이 캄캄한 날들이었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제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저를 창조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였고 저를 만나 주셨으며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육신의 부모님을 잃은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후, 같은 직장에 다니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당시 제게는 아버지와 같았던 목사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 가운데 만여느리로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어려움은 생각했던 것보다 컸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작고 보잘 것 없는 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가셨고, 친정의 올케언니와 시집의 시동생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 일은 정말 오로지 주님만이 해내신 기적같은 일이었습니다.

신실한 불교신자였던 올케언니가 어느날 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병명도 찾을 수 없었고 모든 가족이 걱정 에 쌓여 있을 때, 친정오빠는 올케 언니의 병이 내림굿을 통해서만 고칠 수 있고 아주 옹한 무당이 될 수 있다는 무당의 말을 믿고 굿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로 달려가 목사님께 이 소식을 알리자, 온 교회가 하나님께 올케언니의 회복을 구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올케언니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평상시에는 선하고 성실하지만 술만 마시면 다른 사람이 되는 시동생 때문에 갓 결혼한 동서는 오래전에 조금 다녔던 교회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서와 함께 시동생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시동생



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던 중 저의 금식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은 시동생의 마음을 움직여주셨고, 시동생은 교회에서 열리는 부흥회에 부부동반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회 첫날, 첫시간, 시동생은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주님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시동생을 교도소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굳건히 세워 주셨습니다. 이 기적같은 일들을 통해 주님은 올케언니와 시동생을 저의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 주셨고 마침내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지금은 양가 모두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올해로 우리 부부는 결혼을 한 지 41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짝지어 주신 남편은 입마누엘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생명의 삶을 수료하며 마음 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멕시코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온 지가 7년이 되어가고 있네요. 남편의 신앙회복이 온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지요. 그러나 이 일 또

한 하나님께서 분명 머지 않은 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그분께 나아갑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이사야 12:2~3, 개역한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글 이상분 권사 (산호세 평원 케냐 목장 목사, 주일 예배/담임 목사를 위한 중보기도팀)

기도의 여정, 그 전환기에서

입마누엘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 벌써 5년을 향해 갑니다. 처음에는 곧 떠날 처지를 핑계 삼아 있는 듯 없는 듯 아주 조용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돌아가리라는 '음흉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역시나 인생사는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결국 미국에서의 정착을 준비하게 되었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다는 본래 의도는 성취될 수 없었지요. 어느덧 교회 사역의 일원이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었고, 그중 하나가 피해갈 수 없는 '생명의 삶' 수강이었습니다.

'생명의 삶'을 수강한 후 이제 최소한의 의무 방어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 여유가 도저히 없었던 남편이 함께 수료하지 못하고 한발 늦게 수강하게 되면서 살짝 마음에 동요가 일었습니다. '이왕 남편이 운전해서 가는 길인데, 나도 따라가서 뭐 하나 더 들어볼까?' 언제나 게으름은 허다한 도전을 덮는 법인지라 최후의 순간까지 피곤한 저녁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고민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강의실에 와 앉아 있더군요. '기도의 삶' 수업의 첫 시간, 감사이신 전도사님께서 '기도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아주 교과서적인 답을 내놓으며 그렇게 '기도의 삶' 수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그러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 제게 기도란 아주 가까운 것이면서도 한없이 어렵고 먼 것이기도 했습니다. 날 사랑하는 분과의 친밀한 대화라는 말을 자주 들었기에 감미롭고 정겨운 것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척도처럼 여겨져 무거운 의무이자 힘들게 해내야만 하는 숙제처럼 여겨지

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기도를 쓴 적은 없지만 그것이 과연 진정한 기도였는가 자문한다면 자신이 없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보다 더 내밀한 속마음에는 최근까지 차곡차곡 쌓이게 된 기도에 대한 회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던 때, 저와 6살 차이 나던 제 남동생은 갑작스런 골수암 발병으로 병을 발견한 지 4, 5개월 만에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 동생이 사망하던 그 순간 저희 어머니는 기도원에 계셨고,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낮게 하실 거란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997~1998년 한국이 소위 IMF 위기이던 당시, 지금의 저희 시아버님은 운영하시던 제법 규모 있는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버님은 모든 예배를 누구보다 성실하게 지키시며 기도에 힘쓰는 장로셨습니다. 미국으로 오기 직전, 저희 부부는 교회에서 젊은 부부 구역 구역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희 구역에 참 신실한 자매 한 명이 자궁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당시 온 구역 식구들은 모든 기도 제목을 뒤로 미룬 채 그 자매의 치유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었습니다. 회복과 재발을 반복하다 그 자매는 결국 3여 년 만에 5살 아이를 두고 먼저 소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 가운데, 감히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일하심에 대해 반기를 들 수는 없지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대전제에 의문을 제시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지만, 기도에 대한 회의가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실 텐데,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새벽마다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부모님들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게다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 주신다'는 말을 수 없이 들었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 기도마저도 자기 의(義)가 되어버리고 마는 현상을 자주 목격한지라, '기도를 많이 한다는 의미는 대체 무엇인가?'... 하는 의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솔직히 10주의 '기도의 삶'을 공부한 것으로 이 회의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아마도 천국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뒤에야 그 해답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삶' 10주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으면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 출발은 공부를 통해 기도에 대한 제 인식이 바뀐 것에 기인합니다. 여러 번의 배움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제 기도는 저에게서 출발한 간구에만 집중된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으니 들어주십사 하는 청구서와 같은 것이었다 할까요. 그러나 기도마저도 찬양과 감사가 주가 되어야 하며, 그 찬양과 감사의 근거는 말씀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지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이름과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찬양하는 것, 일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주목하고 그에 대한 온전한 감사를 돌려 드리는 것. 그것이 간구보다 선행되어야 할 기도의 중요한 요소임을 '기도의 삶' 강의를 통해 환기하게 된 것이지요. 물론 여전히 간구 거리는 넘쳐나고,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하기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기도로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강의 이후 제 기도가 좀 더 확장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당장 제 간구의 제목들이 실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씀에서, 일상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할 주제들은 넘쳐나니까요.

"내 기도의 여정은 어디쯤 와 있는가?" 수업 중 주어진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저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한고비를 넘어야 하는 단계'라고 썼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기도의 문을 열고 닫으며 하나님께 다가가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기도마저도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평생에 지속될 기도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말씀 그대로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셔서 말 그대로 '기도의 삶', 그 여정을 시작케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글 하영윤 (산호세 평원 CBI목장, 새가족부 영접팀, 상담사역부)



어린이 목장을 기대하며

임마누엘 목장에서 올리브 블레싱, 어린이 목장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하여 어떤 열매를 맺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아이들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을 통해 공급되는 힘으로 또 어떻게 자라날 지 마음이 설렙니다.

목장을 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문제가 아이들을 섬기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잘 놀긴 했습니다. 영화를 보기도 하고 좁은 아파트에서 숨바꼭질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목장에서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목장을 시작할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아이들을 위한 축복기도는 항상 해왔었습니다. 안민는 가정의 아이들도 목장의 지정곡 '예수 사랑하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을 계속해서 함께 불렀더니 추미새까지 넣으며 외울 정도까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들도 언젠가 기억날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찬양이 끝나면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압전히 있긴 하지만 딱뚝하며 기도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

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실 거라 믿습니다.

목장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중학생이었던 둘째 딸아가 자신이 배운 Awana를 가지고 성경 구절 메모 넣기 등등 성경과 관련된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끝나면 끝난 학습지를 엄마들에게 가져와 사인도 받게 하곤 했는데 끝나고 사랑을 묻고 영화를 볼 때면... 뭔가 했다는 성취감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만나주신 듯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소위 말하는 어린이 목장은 어른들 목장보다 훨씬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많았답니다.

한국에서 단기 연수 오신 가정이 한국으로 돌아갈 때는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라도 아이들이 방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가정의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씩 섬기는 VIP 가정을 초대해 식사할 때도 저와 남편은 거실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는 방에서 그 집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른들은 실패해도 복음을 들은 그 집 아이는 예수님을 영접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함께 목장에서 보면



아이들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지나고 보면 목장을 하면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아이는 하이스쿨 다닐 때었는데 늦게 미국에 와서 공부 따라가기가 바빠 목장을 하면 도서관으로 쫓겨났고, 둘째는 말 안 듣는 아이들 데려다 성경 공부시키느라 맨날 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큰 축복으로 갚아 주신 것을 봅니다. 얼마 전 대학원 진학을 한 큰 아이는 좋은 교회를 만났고 담당 간사로부터 많은 케어를 받으며 잘 정착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간사가 저희 목장에서 기도도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큰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벌써 후배 아이들을 챙기고 있더군요.

그리고 둘째 아이는 지금 대학교에서 열심히 캠퍼스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학교에서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전도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무슬림, 유대인, 힌두 ...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누구에게나 복음 전하느라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

서 이야기를 건네는 아이들 중 너무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교에 와서 너무 바빠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고 말한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 대부분은 피곤하고 지쳐 보인다고 합니다. 바쁜 공부에 지배 받았던 아이들은 여전히 더 힘든 공부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둘째 아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리는 기쁨으로 매일매일 기뻐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승리가 있음을 이미 체험했기에 열심히 공부하지만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봅니다.

어린이 목장을 통해 먼저 목자로 헌신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셨으니 그 사랑을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장에 참여한 많은 아이들이 어리지만, 하나님을 말씀으로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글 강하나 권사 (서부 평원 이고니온 목장 부목자, 시온 찬양대, 여성 사역부)

채워주시는 하나님



올 여름 뉴멕시코로 단기선교를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깃했지만, 계절학기를 들어야 한다는 압박과 의무감 속에 가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선교를 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 시기, 봄학기는 저에게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지치고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학교에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들어가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포트폴리오 준비 때문에 몸과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 갈등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기, 저는 매주 금요일예배를 나가며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금요일예배를 통해서 지쳤던 마음을 위로받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점점 더 크게 갖게 해주셔서, 여름학기를 듣지 않고 선교를 가기로 마음먹은 후 뒤늦게 선교팀에 조인했습니다.

뒤늦게 조인한 만큼 여러 가지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마치고 지난 6월 16일 팀원들과 뉴멕시코로 떠났습니다. 칠일 동안 머물 선교지

Living Water Retreat Center에 도착했을 때는 물이 끊겨 컵이 틀 정도는 씻을 수도 없었고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온 선교팀원들과 날씨가 겹치는 바람에 잠자리도 원래 지정된 곳이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창고로 쓰이다시피 하는 컨테이너 하우스를 깨끗이 닦아 그곳에서 지냈고 침낭을 이용해서 잘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맡은 사역은 아이들에게 게임이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는 VBS 사역이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해야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되었고, 비록 어린아이들이지만 성경지식도 믿음도 많이 부족한 제가 누군가에게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틀간 진행될 VBS에 아이들을 초대하기 위해 셋째 날 주니족 친구들이 사는 곳으로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아직도 도착했을 때의 그 막막한 심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땀별, 공사장, 그 옆 황량한 모래사장...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 하

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 도착한 곳은 모래사장였고, 바로 옆은 공사 중이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뉘서 한 팀은 천막을 깔고 준비해온 페이스 페인팅, 풍선 아트, 물총 게임 등을 세팅하였고, 다른 한 팀은 집집마다 찾아가 아이들을 밖으로 부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초반에 찾아가 대다수의 집에 아이들이 살고있지 않아 우리 팀원들 모두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했던 것과 달리 이십 분 정도 지났을 때 한 친구가 나왔고, 한 친구가 나오더니 아이들 서로가 서로를 데리고 와서 그 자리가 꼭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얼마나 길고 짧았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고 바빴지만 더할 나위 없이 즐겁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준비가 서툴렀음에도 작은거 하나하나에 신기해 하고 좋아라 반응하는 아이들을 보며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리고 걱정과 불안도 잠시, 많은 아이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노방전도 둘째날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 해주셔서 모래사장이 아닌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더 안전히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노방전도를 통해서 4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VBS에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VBS기간 동안 서툰 실력과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전하고 알리면서 아이들이 참 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나 관심이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해 주신 새로운 마음과 발견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말과 행동이 사랑으로 다가 갔기를, 그 속에서 주님이 드러났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VBS 마지막 날 예배 시간입니다. 찬양 도중 아이들 모두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 함께 찬양하고 율동 하던 그 시간이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첫날 어리둥절해 하며 가만히 서 있던 아이들의 모습

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고 모두가 하나 되어 한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하던 아름다움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해 주셨다는 커다란 감동 반, 정들어 버린 아이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서운함과 아쉬움 반으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교의 시작과 끝을 돌이켜보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저에게 첫 선교였던 만큼 어리숙한 점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을지라도 또 다른 방법과 지혜로 위기의 순간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의 일상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실 하나님께 조금 더 귀기울이고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겠습니다. 이번 선교의 시간을 통해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또 더 크게는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작은 말과 행동, 환경,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많이 필요한 그들이 것 같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만난 귀한 아이들과 또 우리 선교팀 한분 한분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글 양은경 (비전 청년부 신정환 목장)



네팔에서 만난 친구들



When my dad first told me about the mission trip to Nepal, I wasn't really sure whether I wanted to go or not. It was my last summer before I went off to college, and I didn't know if I wanted to spend part of it in a country that I did not know about at all. But after praying and thinking about it, I decided to go. I had a first-hand experience of how poor a country Nepal was, right from the get-go. In Nepal, I was first taken aback from how old and dirty everything was. I already knew that the country was very poor, but I was still surprised at many of the torn-down houses and how dirty everything was.

아버지께서 네팔 단기선교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꺼내셨을 때, 사실 저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대학에 가기 전 마지막 여름을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기도와 숙고 끝에 가기로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네팔이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낡고 더러웠습니니다. 네팔이 가난한 나라라는 사실은 진작 알고 있었지만, 다 쓰러져가는 집들을 보고 놀랐습니니다.

During I stay at Hetauda with Missionary Kim Kyung So, I spent over a week with less privileged children who were living in the slums. First, I was very nervous before meeting the kids. I did not know whether I would connect with them well. However, when I greeted the kids for the first time, they shook my hand and hugged me. At the schools, I praised the Lord, listened to sermons and did arts and crafts with the kids there. I really enjoyed singing and dancing to praise songs there. The kids praised God with real joy and happiness, singing as loud as they could, and I felt ashamed because, back at church, I did not praise God as loud as I could or with a lot of Joy.

김경수 선교사님과 헤타우에 한 주간 머무르면서 빈민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니다.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사실 처음에는 긴장이 되었지만, 아이들은 손을 잡거나 껴안으며 반갑게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미술과 공작을 하였습니다. 아이들과의 찬양은 정말 즐거웠고, 아이들은 정말 즐겁게 목청껏 찬양을 불렀습니니다. 저는 이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즐겁게 찬양해 본 적이 없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I also really enjoyed spending time with the kids. They were really nice to me and played well with me, and it was encouraging to see them smile all the time. Based on how happy the kids seemed to be, I could have really been anywhere on this planet. Although Nepal was a very dark country with not many Christians, Jesus' love shined bright and there was joy at the Jesus Christ Culture schools. Also, the teachers who taught there were really loving and nice to our mission team, praying for us and sharing their stories with us. On the last day, one of the teachers gave each team member a pen that she made herself, and another one gave me a book he wrote and illustrated. I was very touched by their kindness,

realizing how I did not even think about giving the teachers or kids a gift.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참 즐거웠습니니다. 아이들은 저와 잘 놀았고, 아이들의 미소를 보면 힘이 났습니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정말 네팔의 빈민가가 맞나 싶었습니다. 네팔에는 기독교인이 많이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곳에 넘치고 있었고, 예수 문화 학교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학교의 선생님들은 우리 선교팀에게 매우 친절하셨고, 기도를 해주셨으며, 많은 이야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한 선생님은 손수 만든 펜을 모두에게 나눠주셨고, 다른 선생님은 손수 쓰고 그린 책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Many of the kids there had single parents because many parents have committed suicide. Where I live, children can advance to great colleges and find good jobs if they study hard. But Nepal has a different reality because even if you study hard, it's hard to find a job and earn a living. You might become a professor, but professors make about a hundred dollars a month, compared to three hundred dollars a truck driver gets. And truck driving does not require any education. As a result, there is not a lot of motivation for kids to stay in school.

많은 아이들이 편부모 가정 출신인데, 그 이유는 많은 부모가 자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선 아이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있지만, 네팔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직장을 얻거나 삶을 꾸려나가기 어렵지 않습니다. 대학교수가 된다고 해도 월급이 일백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특별한 학력이 필요하지 않은 트럭 운전기사는 삼백 달러를 벌 수 있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I learned how spoiled I was and that I need to be much more thankful of the things that I have in life, no matter how small they might seem. I learned that I need to be joyful and happy in life. I saw all the kids who were living in the slum, and just looking at all their smiles made me happy. Although these kids did have a lot in life, most of them were all smiles.

저는 네팔에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반성을 했습니다. 또한, 늘 즐거워하며 기쁘게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니다. 네팔 아이들은 빈민가에서 살고 있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고, 아이들의 그런 미소를 보며 저는 행복을 느꼈습니니다. 아이들은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결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니다.

Lastly, knowing that God made everything, I thought and questioned: why would God put me in such a privileged position and have some people suffer in places like Nepal and live in the slums? Then I realized that people like me were supposed to go and help these people. I was supposed to go to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and help the people there, to spread the gospel to a very dark country. Nepal was a Kyung-hum (Korean word meaning 'experience') that I can never forget, and I can never forget the kids and everyone there. Before leaving the Jesus Christ Culture schools, the kids asked me if I were to come back, and I promised them I would, so I'll be back next year.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네팔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게 하실까?' 그리고 제가 깨달은 생각 저와 같은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네팔에 제가 가서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네팔 선교 여행은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문화 학교를 떠나기 전, 아이들이 다시 올 거냐고 물었고, 저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다시 네팔로 갈 것입니다.

포기하라! Give It Up!

Growing up, I was a “holy” kid who knew all the biblical answers. My parents met at church, so, ever since birth, I was surrounded by bible verses and biblical words. Still, I never really knew I was worth much in God’s eyes, I never really encountered Christ until at a retreat in 7th or 8th grade. It was a soothing feeling, but only a taste of what his love is, and I was afraid of what the guest speaker referred to as “letting go”.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거룩하게’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교회에서 서로 만나 결혼하셨기에 저는 나면서부터 많은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7학년인가 8학년 수련회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은 기분 좋은 일이었지만,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맛보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강사님이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겁도 났습니다.

Toward the end of middle school, I had a lot of debates and arguments with my friends, about whether or not God exists, and because of that, I learned to be desperate and hungry for God. But after a while, I lost that group of friends, and part of my life seemed to crumble.

중학교가 끝날 무렵까지 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친구들과 많은 논쟁을 벌였고,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었고, 제 삶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High school was just around the corner, and I decided I wanted to play football. That only built up pride within me, and it was so hard to have a heart that wants to be on fire for Jesus, it all seemed like a myth-how God can love me after the things I’ve done by growing more prideful. Also, prayers just didn’t seem to get answered. 고등학교 진학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풋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마음속에 자만심이 자랐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의 불을 지피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자만심 속에 저지른 모든 짓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믿기 힘들었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I got so stressed out about my daily life. I was quarreling with kids at school, arguing with teachers, and in a way, I felt like I was trapped with the World’s ideas, opposite of what Jesus taught- to love and forgive others. I used my hatred toward people as my motivation, always doing that extra push up or adding 5 more pounds to the bar. I always remembered whoever wronged me, and I thought “I will beat you through the pain and tears of working out” I believed if I was physically tougher, nobody could mess with me. Hatred was what drove me, and that summed up my freshman year of high school.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웠고, 선생님들께 대들었으며, 점점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갔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누

군가를 미워하는 힘으로 살았습니다. 악착같이 운동을 하면서 나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기억하고 미워했습니다. “피땀 흘려 운동을 해서 꼭 너를 꺾고 말 테다.” 저는 저의 힘을 키우면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증오심이었고, 저의 고교 1학년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It was during the summer when Pastor Brian told us about Mexico Missions, an 8-day trip down in Mexico, evangelizing to the people there and serving others. I was so tired of how I was living, so I decided to go, partially because I wanted to escape my current life.

여름이 다가오자 브라이언 전도사님이 8일간의 멕시코 단기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멕시코에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삶에 지친 저는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마음도 있어서 단기선교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When I finally got there, I was shocked by the size of the crowd- almost 800 kids from all over the U.S., gathered together to evangelize. It was incredible to see how at every worship service so many people would take off their shoes, lift their hands or just kneel down, crying and repenting, while I was just there with a hardened heart. Sometimes I would be sitting in the back corner, just thinking “why am I even here?” and questioning how I can bless others when I can’t receive God’s blessings.

그곳에 도착했을 때, 미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여든 8백여 명의 아이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놀랍게도 예배 때마다 아이들은 신을 벗고, 팔을 들거나 무릎을 꿇은 채로 울고 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종종 뒤쪽 구석에 앉아서,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나조차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남에게 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But, one night, there was a guest speaker named River, and she preached a sermon about forgiveness. Her childhood was so much worse than mine. Her dad would come home drunk most of the time, beating her and her mother, sometimes not even coming home. And he eventually started practicing evil sorcery.

그러던 어느 날 밤, 리버라는 강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분의 어린 시절은 저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귀가하셔서 어머니와 자식을 때리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고, 결국 사악한 무당이 되었습니다.

But, by God’s grace, she received a calling and learned to forgive her father. It was a sermon that touched my heart. My environment was safe, loving, and, there I was, complaining about others, holding grudges and not learning to forgive.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안전하고 사랑받는 환경 속에 살면서도 늘 남에 대해서 불평하며, 미움을 품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At the end of her sermon, she spoke to people who struggled with forgiving others or had other sins, asking them to stand up and start praying. Immediately, I got up and just started praying. And I started to cry, despite all my church members next to me. When I lifted

나의 하늘 아버지에게 (Dear Heavenly Father)



음악 애호가셨던 아빠는 피아니스트 엄마를 만나셨고, 저는 1970년대 정서와 사뭇 다른 '아들 낳으면 딸 낳을 때까지'라는 독특한 가족계획 아래, 무남독녀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엄마의 말씀에 의하면 제게 피아노 교육을 시작해 주신 생후 18개월부터 우리 집은 언제나 아빠의 클래식 기타, 엄마의 노래, 그리고 저의 피아노 소리가 끊임없이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만 네 살 되던 해, 그날도 여느 일요일 아침처럼 즐거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던 우리 집 공기를 가르며 벨 소리가 울립니다. 나가보니 얼마 전 '예수님 찬양'과 '천국 열차' 율동을 신나게 보여주던 동네 꼬마 친구입니다. "혜원이와 교회에 같이 가고 싶어요. 그리고 천국도요..."라고 수줍게 방문 이유를 밝히며 서 있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엄마의 목소리에 제 마음이 왜 그리 바빠졌는지 눈물도 막나고 꼭 교회를 따라 가겠다는 고집에 속수무책이 되어버린 엄마는 결국 마지 못해 교회 출석을 허락 하셨지만 그때부터 매주 유아부실 밖을 서성이며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수고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한 지 몇 달,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딸아이가 정말로 좋아하는 주일 학교에서 전하는 내용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진 엄마는 결국 망설임 끝에 유아부실 끝 발치에서 예배를 경청해 봅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동기를 놓치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엄마를 만나 주십니다.

주일이면 모녀가 예수님 찬양을 함께 부르며 교회로 힘차게

달려가니 일 년 넘게 아침에 혼자 외톨이가 되어버린 아빠의 불만은 한계에 이른 듯합니다. 어느 주일 아침, 아빠는 겸연쩍은 표정으로 두 손에 엄마의 성경책을 들고 앞장서듯이 집을 나섭니다. "나도 한번 교회 같이 가 봅시다..." 그렇게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란 은혜의 대열에 합류하며 주님께 매일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추어 작곡 실력으로 KBS 가요제 대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었던 아빠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여가만 생기면 가족이 함께 부를 가스펠 창작 작업에 몰두해 갑니다. '좁혀 주소서'라는 아빠의 친필로 적혀있던 가사와 네 박자 안에 담겨 있던 멜로디는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기만 합니다. 다시 묵상해 보니 주님을 처음 만나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우리 가족의 주님을 향한 첫 결단과 고백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못 보을 줄 알았던 주님 모습을, 못 들을 줄 알았던 주님 음성을,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한 후에, 보이네, 들리네 모습 좁혀 주소서. 조금 더 가까이 주님의 모습 보고, 조금 더 가까이 주님의 음성 듣게, 다만 주님 저와의 거리를 좁혀 주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가족의 삶이 어느덧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갑니다. 2011년 5월, 한국에서 위암으로 투병하시던 아빠가 많이 위독하시다는 이야기를 전화로 전해 듣습니다. 피아노 공부를 위해 오랜 유학 생활을 했기에 부모님과 살아온 시간이 손꼽아 고작 15년, 머리와 가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 이사야 43:21

묵직한 곳에서 나를 전진하게 했던 동력의 기어들도 잠시 가동을 멈춘 채 지난날들의 회고를 먹먹히 불러일으킵니다. 유학 떠나는 제 손에 아빠가 손수 작곡해 건네주시던 찬양, "이 세상 그 어떤 고난 유혹이 밀려와도 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고 따르리니...", 딸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과의 신실한 관계만을 바라며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하늘 아버지가 바라는 마음을 육신의 아버지가 오선지에 간절히 담은 고백입니다. 저를 움직여 가던 또 하나의 거대한 동력, 국제 콩쿨 최종 본선 무대를 앞두고 무리한 연습으로 인해 경험한 장기간 왼손 마비 증세, 그 절망과 슬픔이 믿음과 감사로 전환하기까지 기도의 제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쌓으셨던 엄마의 눈물의 새벽 무릎 또한 가슴을 적시며 진하게 회고 되어집니다.

한국에 도착해 병실로 정신없이 뛰어들어오는 저를 보고 아빠가 하신 첫 마디는 "이제는 다 됐다..." 봤으니 더 이상 여한이 없다는 것이지요. 자식이 너무 보고 싶었고, 그리웠고, 차마 보지 못하고 떠날까 하던 아버지의 초조함과 사랑이 모두 녹아 흐르는 한마디였습니다. 며칠 후 한국에서 공연이 잡혀있었고 기획 측에 상황 설명을 드리며 연주를 취소하는 순간, 힘든 숨을 가누며 말리시는 아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혜원아, 그 공연 자리를 지켜다오. 천국을 진심으로 사모하니 우리 사람에게 담대하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옴으로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조금도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강건한 딸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내 딸... 이제부터 우리 서로가 그

리워질 때 피아노 건반에서 만나자" 그의 굳건한 믿음은 결국 저를 담대히 무대로 이끌었습니다. 연주는 시작되었고 눈물로 온통 뿌옇게 흔들리는 건반을 달래며 하늘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사무치게 노래했습니다. 연주 끝나고 돌아와 보니 아빠는 강한 모르핀의 약 기운으로 이미 코마 상태에 이르셨고 이제는 정말 그가 그리울 때 건반 앞으로 달려가 함께 나누던 찬양의 추억 안을 더듬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피아노는 제 인생을 목적하신 대로 철저히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계획과 간밀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간증의 장이 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베푸신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하게 하신 것이기에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생명 다해 송축해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피아노는 살아계신 창조주 아버지를 향한 가슴 벅찬 찬양의 제사를 입마누엘 모든 성도와 함께 힘차게 울려 드릴 수 있는 감격스런 은혜의 자리이며, 무엇보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과 교감하며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옴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글 서혜원 (북부 평원 Amiso 목장, 호산나 찬양대 반주자)

축복의 통로

‘저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16년전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만드시고 저희 가정에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은 여전히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이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이길 소망합니다.

청년부에서 만나 결혼한 저희는 그 당시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잘 몰랐습니다. 저희는 그냥 막연하게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정을 통해 흘러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결혼하고 3년 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미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2년 정도 포스닥(박사후 과정)으로 일을 한 후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미국(일리노이)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한인교회를 섬기며 목장(구역)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목장을 통해 여러 가정을 만나게 되었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며 주님을 알아 가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유학생 가정이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함께 장래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며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함께 배워갔습니다.

그러던 중 연구실에서 편당이 중단되어 저희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야 할지 미국에 남아서 직장을 구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지만, 한국, 미국 둘 다 진행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 있는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섬겨야 할 가정들을 사랑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을 허락하셨고, 그 힘으로 목장의 가정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께서 직장을 허락해 주셔서 콜럼버스(오하이오)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는 생각에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오히려 설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어떤 축복을 주실까?’라는 기대감을 안고 새로운 곳에서 정착해 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안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참석하게 된 교회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 교회와 다른 모습에서 실망하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목장에 참석하는 것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은 그것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나의 생각, 기준, 경험이 옳다는 생각)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지식적으로 아는 주님은 점점 작게 만드셨고 마음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으며, 그 사랑으로 저희를 치유하시고 더욱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저희를 더욱 정결하게 하신 후, 다시 목자/부목자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나니, 목장은 저희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또한, 목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장을 통해 잃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와서 그렇게 적응하기 힘들었던 교회가 너무나 귀한 교회인 것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나서야,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 놓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산호세로 작년 여름에 인도하셨습니다. 이주하는 과정이 그리 쉽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계속 저희 가정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장로교회에 오자마자 ‘생명을 삶’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올해 목자/부목자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허락하신 목장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목원들을 섬기게 하시니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16년 전 막연하게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했던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저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저희 스스로도 몰랐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

시고,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고 지금도 계속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글 심도준 (남부 평원 락스링스 목장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신 키르키즈 목장



할 헬루야~ 키르키즈스탄에서 사역하고 계신 김정진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키르키즈 목장의 고석진 목자입니다. 남부 평원으로 Cupertino 및 산호세 지역의 가정이 모여며 올 초 서로 알지 못하는 네 가정이 기도를 통해 만나게 되었고, 3월 초에 VIP 한 가정이 조인하여 모두 다섯 가정이 목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키르키즈 목장을 통해 역사하신 일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마 18:1~4)

말씀과 같이 키르키즈 목장은 세상에서는 모두 작고 천국에서는 큰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목장 식구 모두 섬김과 겸손이 몸에 베어 있으시고 목장 초기에는 서로 알지 못하던 네 가정이 모이게 되어 걱정도 많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VIP 가정이 지난 8월 27일 주일에 세례를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처음 만나게 된 네 가정 모두 서먹서먹했던 첫 목장을 시작으로 초기 목장 때는 모두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임했던 모임에서 이제는 마치 새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듯이 새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마 9:17)

한 가정은 건강으로 인해 미국 방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목장 식구들의 기도로 건강이 회복되어 미국 방문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목장 형제님들 중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지 않았던 세분이 모두 함께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또한 목원 중 임신하신 자매님의 출산을 돕기위해 미국을 방문하기로 하셨던 어머니가 뇌혈관 손상으로 급히 수술을 받게 되어 미국 방문을 취소하셨다가 목장 식구들의 기도로 빠르게 회복되어 미국 방문이 다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정은 남편이 출장 중에 홀로 딸 아이와 지내던 자매님이 갑자기 stomach flu에 걸려 목장 카톡방에 기도 제목으로 올렸을 때 목장 식구 한 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며 올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막 9:23-24)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을 때 말씀 붙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求)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과는 구별된 모임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구별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의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바로 예수그리스도께서 목자 되신 임마누엘장로교회의 목장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장 모임이 없으면 한 주가 왠지 마무리되지 않은 것 같다는 VIP 형제님의 고백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은혜로 인함을 고백합니다.

글 고석진 (남부 평원 키르키즈 목장 목자, 수요 찬양팀, Youth Small Group Leader, 시온 찬양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2:14

사진 김흥대 (산호세 평원, 호산나 찬양대, 편집부 사진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책임 호임을 자처하는 예배 1부

예배부는 따로 소개하지 않아도 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대로입니다. 다만, 예배부에서 맡아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아시게 되면 “그런 데까지 신경 쓰고 있구나” 하시겠지만요.

올해부터 예배부는 예배1부와 예배2부로 나뉘었습니다. 예배1부(2018년부터 '주일 예배부'로 개칭 확정)는 주일 예배를 맡고, 예배2부(2018년부터 '특별 예배부'로 개칭 확정)는 평일에 드리는 수요예배, 특별새벽예배, 부흥회 등 특별집회를 맡습니다. 여기서 소개드리는 건 예배1부입니다. 예배1부는 성찬 예식 준비팀, 동시 통역팀, 꽃꽂이팀과 3개 안내팀까지 모두 6개 팀으로 구성됩니다. 안내팀은 각 예배마다 따로 있어서 1부 예배 안내팀, 2부 예배 안내팀, 3부 예배 안내팀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 준비팀은 성찬 예식에 필요한 온갖 성물들을 구입하고, 성찬 예식이 있을 때마다 예식 진행을 위한 전반적인 세팅을 하고, 떡과 포도주 대용물을 미리 제기에 담아 장로님들의 원활한 분잔을 돕습니다.

동시통역팀은 2부 예배 때 외국인을 포함하여 영어가 더 편한 분들을 위해 목사님의 설교를 영어로 동시통역해 드립니다. 원고는 원칙적으로 미리 전달되며 팀장님과 한 분 집사님이 번갈아 가며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두어 분이 총원돼 한 달에 한 번꼴로 로테이션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자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팀입니다.

꽃꽂이팀은 매주 토요일 싱싱한 꽃을 구입하여 본당의 강

단을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십여 명의 팀원들이 돌아가며 우리들이 단순히 보고 느끼는 것 이상의(상당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안내팀에 대한 소개 전에 언급할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 기도나 안내, 영접을 맡을 장로님과 안수집사님들을 매주 배정하여 통보하고, 필요 시 대체 및 교체를 위해 수고하는 기능은 예배1부에서 맡아야 하겠지만, 편의상 종전대



로 현 예배2부 부흥/특별집회 섬김 팀장이 맡고 계십니다.

각 안내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약 20명에 이르는 안내팀의 가장 큰 목표는 성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오로지 예배드리기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당의 실내 온도 조절에서부터 성도 여러분의 자리 안내, 본당 정문과 후문의 개폐 통제, 미디어 부의 협조를 받아 난청자 및 외국인인을 위한 리시버 비치를 하고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에 적기 대응하고 비상사태 발발 시에 성도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 대피시키기 위해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는 성도들이 떨어뜨린 물건들을 수거하고 자리를 정돈해 다음 예배가 청결한 가운데 드러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안내팀원 가운데 일부 팀원들은 자원하여 1부 예배 전에 드러지는 주일예배 중보기도 모임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여러모로 애쓰는 안내팀에서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 몇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방해받지 않고 예배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예배 시작 전에 입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 먼저 오신 분들은 앞쪽에서부터, 안쪽에서부터 빈칸을 두지 말고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오신 분들이 앞쪽이나 안쪽으로 들어가 앉으려면 서로가 불편하고 주의가 분산됩니다.

3) 늦게 오신 분 중에는 쉬운 대로 접기 의자를 펴고 뒤에

앉으려고 하시는데, 접기 의자 사용은 원칙적으로 삼가해야 합니다. 저희 본당에는 이미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최대 수용 인원수 만큼의 좌석이 비치돼 있습니다. 그 숫자는 2부 예배 참석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접기의 자리를 펴 앉는다는 것은 허용 인원 초과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통로를 막는 결과를 빚으므로 소방법에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여 접기 의자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좁은 옆 공간보다는 비교적 넓은 가운데 쪽 공간에서 사용하여 충분한 통로를 항상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4) 냉난방과 관련해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본당이 넓다 보니 모든 곳에 골고루 들어오질 못합니다. 추위나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냉난방이 비교적 많이 들어오는 위치를 찾아 앉으시거나 조금 피해서 앉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 안내팀에서 광고 말씀 있습니다. 안내팀에 이미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더 나은 예배 준비를 위해 안내팀원이 좀 더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안내팀을 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교우들의 얼굴을 익히실 수 있습니다. 교인 수가 많다 보니 오히려 교우를 사귀기 어렵고, 누가 우리 교인인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예배 안내팀에서 섬기시면 그런 애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또한, 예배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예배 준비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유익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책임을 제1선에서 맡고 있음을 다짐하는 예배1부 소개를 마칩니다.

글 최인화 (산호세 평원, 예배1부 부장, 해외 선교부 선교사 후원팀)

사진 김범진 (남부 평원, 브니엘 목장, 편집부 사진팀)

편지로 보내는 전도의 이슬비

전도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데 막상 말을 꺼내려고 하니 쉽게 용기가 나지 않으시나요? 혹은 너무 격이 없이 지나다 보니 진지한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이슬비 편지를 보내 보세요.

이슬비 편지란?

이슬비 편지는 1991년 7백만 영혼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이슬비 전도학교 (규장)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수년째 계속해오고 있는 전도 사역으로서, 편지의 형태로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나 믿음이 부족한 분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입니다. 초기에는 새 가족부와 연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지금은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지라는 감성의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해나가고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아름다운 말씀과 기도로 보내지는 전도의 편지는 받는 분들의 마음을 천천히 조금씩 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이슬비가 될 것입니다. 이슬비 편지는 주제와 테마별로 매우 자세히 세분되어 있어서 편지를 받으시는 분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편지는 엽서의 형태에 가깝고 주제에 맞는 내용이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편지를 받는 분뿐만 아니라 보내시는 분도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 우리 교회에 있는 이슬비 편지 중 일부를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해 보았습니다.



편지 내용은 보내시는 분이 여백을 이용하여 더하실 수 있으며, 필요하시면 여백이 많은 편지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성령의 열매 A에 있는 내용 중 하나를 공유합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얻으면 이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이 깨끗이 사라져 버립니다 - 여백 (나눔의 글 - 발신자의 편지글)



구입 및 작성 요령

먼저 대상자를 선정하셨다면 마음에 드는 편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구매는 본인이 직접 친교실 입구에 비치된 편지를 고르시고 안내된 금액을 진열대 왼쪽 아래 우체통 입구처럼 열린 통로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위치는 위에 회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있는 전체 이슬비 편지 종류는 대략 50여 종 이상 됩니다. 각각의 주제별로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보이지만, 혹시 특별히 찾고 계시거나 부족한 종류가 있으면 새 가족 안내데스크 통해 문의하시든지, 메모를 진열대에 남겨 두시면 반영하겠습니다.

편지는 보통 한 세트에 12매 혹은 7매가 들어 있습니다. 매 엽서마다 각각의 내용에 변화가 있으니 읽어보시고 기도하신 후에 보내실 엽서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성경의 말씀에 기초한 내용이 있고 그 아래 여백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곳에 친필로 개인적인 메시지를 추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작성을 다 하셨으면 기도하시고 봉인 후에 우표 없이 주일 예배 오실 때 예배당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신 이슬비 편지는 예배가 끝난 후 이슬비 편지팀에서 수거하여 명기된 주소로 보냅니다. 작성하실 때 감정은 충만하시되, 꼭 수신자와 발신자 모두의 성명과 주

소를 명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는 국내와 국외 (대한민국) 상관없이 모두 배달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실 때는 받으시는 분의 성명과 주소를 한글로 쓰셔도 무방하나 국명은 영어로 기재하셔야겠조 (South Korea 또는 Republic of Korea)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분, 정말 가깝지만 동시에 멀게 느껴지는 분, 혹은 나도 모르게 애뜻한 마음이 드는 그런 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생각하시는 바로 그분을 위해 전도의 이슬비를 내려 보내주세요

글 최동명 (산호세 평원 모로코 목장, 전도부 이슬비 사랑의 편지팀장)



오두막 (원제: The Shack)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심으로 어려운 인생의 시절에 머물고 때, 혹은 하나님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또는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좀처럼 가시지 않을 때, 우리 대부분은 분노와 무기력감, 번민과 고통 가운데 울무처럼 갇혀 버린다. 주인공 MACKENZIE (이하, 맥)은 그런 상태였다. 사랑스럽고 특별했던 막내딸 미시가 캠핑장에서 유괴당하여 죽은 후, 평온했던 그의 가정은 완전히 변한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캠핑장에서 큰아들 조쉬와 큰딸 케이티가 카누를 타다가 호수에 빠진다. 카누에 눌러 물에서 나오지 못하는 큰아들을 구하려 간 사이, 막내딸 미시가 사라지고, 결국 딸의 시체도 찾지 못한 채, 죽음의 흔적만을 확인하게 된다. 그는 갑자기 찾아온 거대한 비극으로 인해 깊은 슬픔과 분노,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맥 앞으로 우표 없는 초대장이 도착한다. 미시가 죽음을 당했던 그 오두막으로 '하나님 아빠'가 초대하는 편지였다. 맥은 살인범의 농간이라고 확신하고, 가족들 몰래 홀로 오두막을 찾아가다. 이번엔야말로 딸을 죽인 범인을 쏘아 죽이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맥은 뜻밖의 존재를 만나게 된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오두막에서 만난 이는 예수님이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내한 '새로운 오두막'에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곳은 딸이 죽음을 당했던 폐허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이 계신 따뜻한 고향 집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화를 내며 따지는 일이었다. 하물며 죄인인 사람도 약자가 나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 정의감으로 그를 구하려고 하는 법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딸이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니! 맥의 분노는 정당해 보이니까지 한다. 그러나, 하나

님은 미시를 한 번도 혼자 내버려 두었던 적이 없었다고 슬프게 대답하신다.

맥이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정의롭지 못할 것 같지는 않았는지, 이번에는 자신의 큰 죄를 떠올린다. 그는 어릴 때 알콜중독자인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술에 몰래 독을 탔다. 맥은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벌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막내딸을 죽게 버려둔 것이라고 단정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무 죄가 없는 미시에게는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어린 딸을 이토록 불공정하게 대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비통함을 더욱 극대화 시켰다. 하나님은 그의 논리와 가정을 부인하고 죄와 벌에 대해 설명하시지만, 맥은 여전히 화가 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씨름이 멈춘 곳은, 그가 직접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자녀들을 심판하게 될 때였다. 자녀들의 죄가 눈앞에서 고발당하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지옥에 보내 버리라고 할 수가 없다. 만일 그래야만 할 정도로 자녀들이 몹쓸 죄인이라면, 자신을 대신 지옥으로 데려가라고 소리친다. 그 순간, 맥은 그것이 바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깨닫는다. 맥은 그제서야 재판관의 왕좌에 올라앉아 세상과 하나님을 심판하려 했던 자신의 교만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

마지막 여정에는 용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은 딸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라 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의탁하며, 그를 놓아주고 너도 자유해 지라고 하신다. 한 번에 용서가 다 되지 않아서 수천 번을 다시 용서해야 할지라도, 수천 번 다시 용서하라고 하신다.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중 가장 거칠고 힘든 길이었다. 험한 바위 산길



이었다. 그러나 맥은 결국 용서의 길을 택한다. 그제서야 맥은 미시를 진정으로 떠나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어린 미시의 몸을 정성껏 세마포와 꽃으로 감싸고, 예수님께 건넨다. 딸을 죽음의 길로 떠나보내며 통곡하는 맥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더해진다. 하나님은 그렇게 맥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였고 위로해 주셨다. 그제야 거센 슬픔의 파도가 숨을 죽였고, 맥과 남은 가족들도 숨 쉴 수 있게 되었다.

이 영화는 많은 논란을 동반하고 있다. 작가 폴 영 (WILLIAM PAUL YONG)의 상상과 개인적 느낌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성

령님의 이미지에 부여해서 표현하다 보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시지 않은 부분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 놓아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매달려 애쓴 느낌도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신다고 한들, 우리가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주신 성경 말씀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인데, 말씀해 주시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 미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롬 12:3)" 고 권면했다.

단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감동 외에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어둡고 깊은 상처가 시작된 '오두막'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께 항복하는 순간 시작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끔찍하고 슬픈 기억들과 무겁기 짝이 없는 인생의 짐 때문에 침몰하지 않게 된다. 맥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자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어쩌면,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 영혼 깊은 곳의 두려움과 상처가 치유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수시로 경험하는 믿음의 삶, 그 자체인 것 같다.

글 한연선 (산호세 평원 인도네시아 마나도 목장, 편집팀장, 유치부 교사)



예배와 영혼구원, 양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임마누엘장로교회
KOREA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www.kepc.org / Tel. 408.263.5100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발행인	손원배
편찬인	박용갑
기획	김정신
진행	한연선 / 김연희 / 김정신
사진	김홍배 / 윤영숙 / 김범진 / 안종훈 / 박종현 / 김홍대
교정 및 번역	김인영 / 정은하
편집디자인	김유경 / 홍정희 / 한 혁 / 정용익